

2026

Vol.48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코스카 레터

| KOSCA MESSAGE | KOSCA NEWS | KOSCA INFO | KOSCA TODAY | KOSCA TOGETHER |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뉴스레터

코스카레터

2026 Vol.48

발행인 회장 김형겸
 기고/투고 kosca21@kosca.or.kr
 편집/발행처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디자인/제작 거북인쇄공사 (051. 808. 5571)
 일러스트 거북인쇄공사



KOSCA MESSAGE

05 권두사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김효숙

KOSCA NEWS

- 06 협회소식
 - 제회의 및 행사
 - 회원사 수주지원 및 업역 확대를 위한 간담회 활동
 - 사회공헌활동
- 20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26 특허 및 신기술 소개
 - 2026년 1/4분기 건설신기술 현황



표지이야기

함께 걷고, 함께 지키는 안전
 황령산 벚꽃길에서 하나된 부산 전문건설인



KOSCA INFO

- 28 회원 스포트라이트
 - (주)이플랜 대표이사 유진철
- 30 건설산업정보(법령개정) PART1
- 31 건설산업정보(회원사안내) PART2
- 42 건설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 44 전문가칼럼
 - 건설관련 법 상담
 - 세무관련 법 상담

KOSCA TODAY

- 46 회원사 현황
 - 부산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
 - 전입·전출업체 회원사 명단
 - 회원사 변동사항(상호, 대표자변경)
 - 부산시회 신규회원 현황
- 52 협회·조합 소식
 - KOSCA 중앙회 업무단신
 -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식
 - 우리시회 2026. 2/4분기 주요일정
- 53 2026년 건설업 교육
 - 교육일정 안내
- 54 건설현장 안전관리 노하우
 - 철골 데크 플레이트 용접 작업 중 떨어짐

KOSCA TOGETHER

- 56 부산의 명소
 - 구포국수체험관
- 57 세계의 아름다운 건축물
 - 루브르 피라미드
- 58 소통하는 문화공간
 - 힐링 무비
 - 힐링 북
- 60 오늘의 트렌드
 - 에이전트 시의 시대
- 62 글로벌 이슈
 - 세계 경제를 흔드는 좁은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 63 슬기로운 생활 꿀팁
 - 계절이 바뀌는 순간, 옷장도 바뀐다
- 64 하루 5분 건강
 - 건강습관 /건강음식
- 66 독자와 함께
 - 회원사 참여 마당(독자의견 및 퀴즈)

새로운 길을 열어갈

더 나은 미래

전문건설인이 함께합니다!

항령산 벚꽃길처럼 지역과 함께 피어나고,
KOSCA세움정원과 같이 미래를 세웁니다.

2025년 9월
KOSCA세움정원 준공

1996년 4월
항령산 벚꽃길 조성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김효숙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는 전문건설인 여러분과 발맞추어,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문건설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김효숙입니다.
어느덧 현장의 활기가 더해지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4월의 따가운 햇살 아래 현장의
땀방울이 빛나는 이 시기에 뜻깊은 소식을 담은 코스카레터 제48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근 우리 건설산업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고유가·물가 상승 등 녹록지 않은 여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물가에 따른 공사비 급증과 수주 물량의 가파른 감소는 산업
전반의 기초 체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자금 조달의 어려움은 지역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계신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김형겸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시 또한 건설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살피고 있으며,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역제한 입찰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등을 시행하는 한편, 폭염 등 기상
변화에 대응한 안전점검 체계 강화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통해 안전한 시공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건설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땀 흘리는 여러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 속에서 전문성 강화와 기술혁신 등 건설업계
스스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 주시길 기대하며, 여러분이 지역 건설산업의
구심점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전문건설인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이 부산의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시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절인 만큼, 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회의 및 행사

01

2026회계연도 제1차 기획혁신위원회의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1월 8일(11:00 / 전문건설회관) 기획혁신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회계연도 제1차 기획혁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2026회계연도 협회 주요일정 계획(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회원사의 법률·행정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필요성에 대한 자문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령, 4대 사회보험 및 노동관계법령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02

2026회계연도 제1차 대외정책위원회의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1월 8일(14:00 / 전문건설회관) 대외정책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회계연도 제1차 대외정책위원회의」를 개최했다.

부산시회 제41회 정기총회 포상후보자, 부산광역시교육청 포상후보자, 2026년 건설의 날 포상후보자를 추천 받았으며, 후보자별 결격여부 등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포상대상자 선정 및 훈격은 회장단 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03

2026회계연도 제1차 회장단회의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1월 13일(10:00 / 전문건설회관 4층 회장실) 회장단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회계연도 제1차 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41회 정기총회 개최 및 포상 관련 사항 등 주요 안건에 대해 협의했다.



04

2026회계연도 제1차 회장단 및 감사 연석회의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1월 13일(11:30 / 롯데호텔부산) 회장단 및 감사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회계연도 제1차 회장단 및 감사 회의」를 개최했다

업종별 등록현황, 준예산 편성·집행, 제증명 발급 수수료 무료화, 이웃돕기 성금모금,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 일정 등 주요사항을 보고하고, 2026회계연도 주요일정 계획(안), 영세 전문업체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제출 및 홍보, KOSCA세움정원 유지관리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05

2026회계연도 제1차 운영위원회의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1월 22일(11:00 / 전문건설회관) 운영위원 및 감사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회계연도 제1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업종별 등록현황, 준예산 편성·집행, 재산조성적립금 사용, 예산전용, 제증명 발급 수수료 무료화, 이웃돕기 성금모금,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 일정을 보고하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 제41회 정기총회 개최일정 및 부의사항 등을 의결했다.



06

2026회계연도 제41회 정기총회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2월 4일(11:00 / 롯데호텔부산) 대표회원 85명, 내·외빈 42명, 수상자 5명, 언론사 3명, 기타유관단체 등 총 15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회계연도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이헌승, 김희정 국회의원 등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하는 등 부산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많은 부산전문건설인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부산시회가 전국 시·도회 중에서 우수시회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으며, 우리나라 경제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공헌한 단체 및 외부인사, 회원사 등에 대한 부산광역시장상, 부산광역시교육감상, 협회 중앙회 회장상, 협회 부산시회장상 등 총 32개 단체 및 개인 유공자에게 포상이 수여되었다.

2부 회의에서는 협회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등이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제41회 정기총회 포상대상자 명단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상

우수시회



부산광역시회장
김형경

부산광역시장상

2025년 자랑스러운 건설인상(우수건설업체)



(주)정우석재
대표이사 송우철



동우건설(주)
대표이사 이기태



대경건설(주)
대표이사 이군희



(주)창선건설
대표이사 김동석

부산광역시장상

2025년 자랑스러운 건설인상(우수건설기술인)



(주)서한기업
대표이사 서쌍철



(주)부근건설
대표이사 신중근



(주)동명종합건축
대표이사 강태환



(주)원디자인
대표이사 윤기원



(주)우성엔지니어링개발
대표이사 최상대



(주)일성기업
대표이사 천상우



(주)통영산업건설
대표이사 강재준

부산광역시 교육감상

표창장

표창장



(주)세광
대표이사 엄세현



(주)테크유니온
대표이사 신유정



에인건설(주)
대표이사 허성규



(주)창성공영
대표이사 안병호



거북건설(주)
대표이사 정영만



(주)금정토건
대표이사 문준식



대산건설
대표 신현상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상

표창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상

회원사 공로패

회원사 공로패



(주)숨을가꾸는사람들
대표이사 고대규



수석건설(주)
대표이사 김창현



상화건설(주)
대표이사 정인호



구구건설(주)
대표이사 정중화



거북토건(주)
대표이사 박도환



강남건설(주)
대표이사 서정규



(주)거도산업
대표이사 김도윤

07

부산광역시 지역제품 구매확대 협약식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2월 10일(11:00 /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1층)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주최한 「부산광역시 지역제품 구매확대 협약식」에 참석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공 상생 연대에 동참했다.

부산시회를 비롯한 지역 경제단체와 부산광역시청 등 부산소재 공공기관, 대학, 금융기관 지역 언론 등 총 140여 기관이 동참한 이번 협약식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공동 실천을 모색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되었다.

이날 협약식에서 부산시회 김형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실시공을 담당하는 지역전문건설업체의 참여율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지역 제품의 구매율은 상승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행정은 제도를 뒷받침하고, 발주처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기업은 책임 있는 결과물로 응답할 때, 비로소 부산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광역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26년 지역 상품 구매 및 지역 하도급 공사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여, 2조원의 추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08

2026년 건설현장 노무관리 및 4대 사회보험 강습회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2월 27일 (14:00 / 부산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 회원사 임·직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현장 노무관리 및 4대 사회보험 강습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습회에서는 ‘건설관련 노동법 개정(안)과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방안’,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및 통합시스템 건설e음’, ‘2026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확정·개산 신고방법 및 2025년 7월 개정 국민연금 신고업무’ 등에 대해 전문강사의 강의를 이루어졌다.



09

2026년 상반기 영남권 건설안전협의회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3월 4일(10:00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별관 ITS 대회의실) 「2026년 상반기 영남권 건설안전협의회」에 참석하여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민관 합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영남권 건설재해 예방과 지속 가능한 안전 중심 현장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전형필 청장(위원장)을 비롯해 부산·대구·울산시와 경남·북도, 지방고용노동청, 국토안전관리원, LH 등 영남권 건설 안전을 책임지는 28개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5년 추진된 안전대책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2026년 건설안전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발생한 건설현장 사망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에 대한 집중 관리 등 실질적인 사망사고 감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부산시회 측에서는 전문건설업계의 안전관리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안전 지원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협의회는 올해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공동 추진사업으로 △각 기관별 자체 안전교육 및 컨설팅 확대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이 운영하는 '영남건설안전365' 플랫폼 활용 확대 등 2개 과제를 선정하고 적극 실천하기로 결의했다.

10

2026년도 이웃돕기 성금 우수기부 회원사 간담회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3월 11일(12:00 / 일광수산회집) 2026년도 이웃돕기 성금 우수기부 회원사 대표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이웃돕기 성금 우수기부 회원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6년도 이웃돕기 성금 우수기부 회원사를 대상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성금모금 현황 및 전년도 성금 전달 내역을 안내하였다.



11

전문건설 바른 미래 빌드업 프로젝트 대의원 간담회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3월 19일(11:20 / 창원 김해횃집) 중앙회 윤학수 회장, 부산시회 김형겸 회장, 울산시회 조현철 회장 등 각 시·도회 대의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건설 바른 미래 빌드업 프로젝트 대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업역 수호 및 시장 정상화, 하도급 질서 선진화, 공사비 현실화, 고용생태계 안정 등 4대 핵심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부산·울산시회 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이 함께 논의되었다.



12

황령산 벚꽃길 안전문화 실천 걷기대회 개최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4월 6일(10:30 / 황령산 전망쉼터) 부산시회 경영자문단(이윤근 자문변호사, 여찬모 자문노무사, 문상용 자문세무사, 김성현 자문변리사)과 우리시회 대표회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령산 벚꽃길 안전문화 실천 걷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김형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협회는 지난 40년간 부산의 건설산업 발전과 회원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으며, 수많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묵묵히 헌신해 왔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안전문화 실천을 통해 건강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며 참석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번 걷기대회 참석자 모두는 지난 1996년 부산전문건설인들의 성금으로 조성한 “황령산 벚꽃길”에서 “환경 정화 및 보호 운동”도 함께 가지며, 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회원사 수주지원 및 업역 확대를 위한 간담회 활동

01

2026년 설 명절 대비 건설현장 하도급 실태점검 실시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1월 19일, 1월21일, 1월 26일 3일간 부산광역시 하도급관리팀과 합동으로 「엄공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에코델타시티 28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등 지역 대형건설현장 3곳을 방문하여 설 명절 대비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부당특약 설정, 임금체불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사전 예방 차원에서 실시됐다.

이 자리에서 부산시회는 지역업체 하도급, 자재·장비 사용 및 실태를 점검함과 동시에 각 현장의 시공사를 대상으로 보다 많은 부산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에 참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고, 공종별 우수전문건설업체 추천이 필요한 경우 협회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안내했다.

아울러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불법하도급 등 건설부조리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했으며,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와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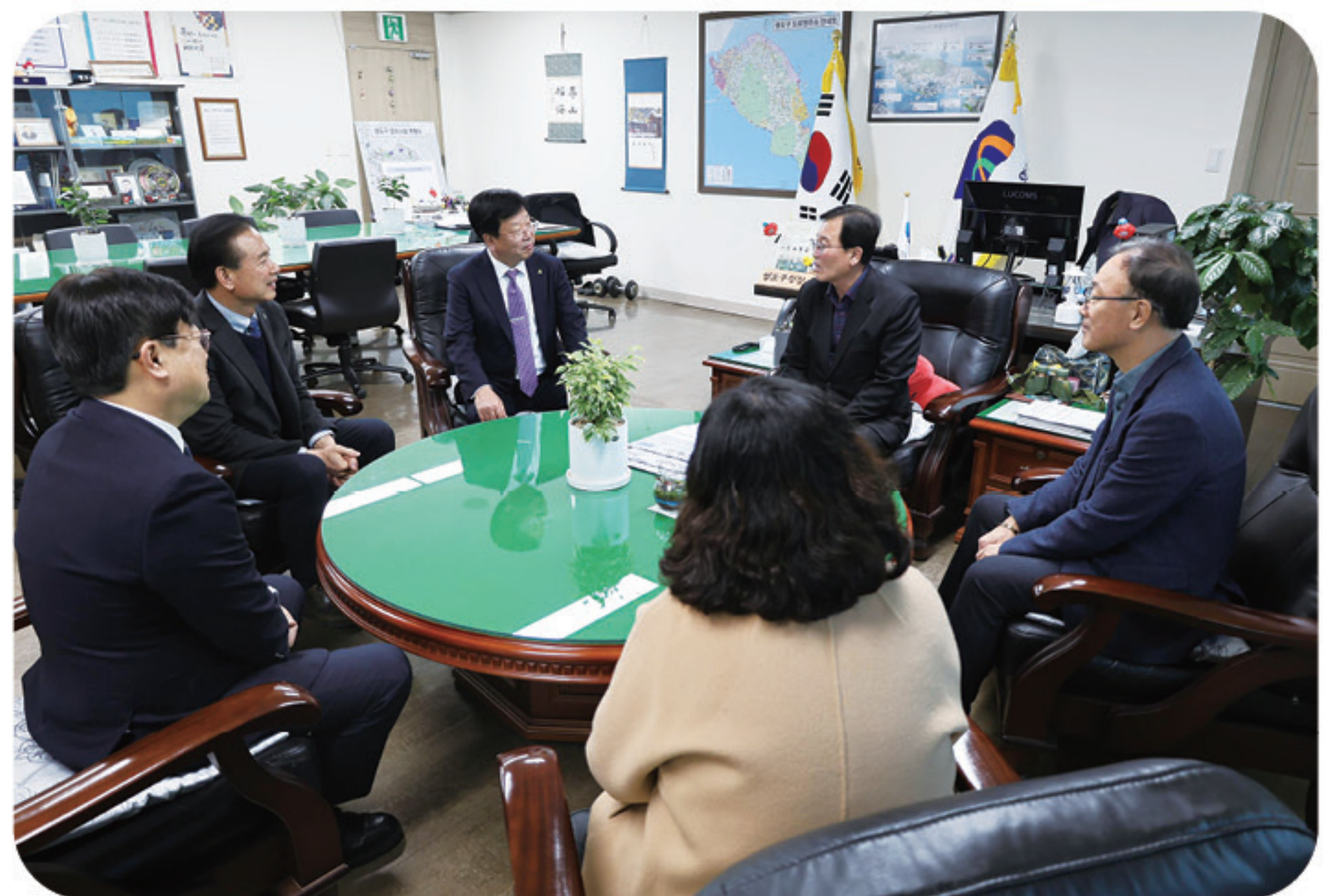
02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간담회 개최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2월 24일 (14:00 / 영도구청 구청장실) 김기재 영도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건설산업과 부산전문건설업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부산시회 김형겸 회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부산전문건설인들은 건설산업의 최일선에서 실시공을 통해 지역자재, 장비, 인력고용으로 부산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영도구의 발전을 위해 전문건설인들이 함께 노력할 것이니 영도구에서도 지역 전문건설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이어 김형겸 회장은 부산시회 회원사의 성금 등을 모아 마련된 영도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가정 돕기 “사랑의 쌀” 1톤(약500만원)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하며,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건설경제단체로 나눔과 봉사를 실천했다.



03

2026년 제1차 하도급 홍보 세일즈단 건설대기업 본사 방문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3월 9일~10일 양일간 부산광역시 하도급관리팀과 합동으로 서울과 인천 소재 본사를 두고 있는 (주)BS한양, (주)한양건설, HL D&I 한라(주), (주)포스코이앤씨를 차례로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2일에 걸쳐 개최된 간담회에서 부산시회와 부산시 하도급관리팀은 부산지역 전문건설업 협력업체 참여 확대 및 지역업체 수주율 향상을 위해 현장설명회를 포함한 실질적인 입찰참여기회 제공 및 실질적인 하도급 계약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특히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을 포함한 대형 국가사업 및 지역 인프라(SOC) 공사에 부산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 사고 예방과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건설대기업은 협회와 부산시가 타 시·도와 달리 지속적으로 본사까지 방문해 부산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에 적극 노력하는 만큼, 우수한 부산 전문건설업체를 발굴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04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장 초청 차담회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3월 23일(11:00 /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협회 회장실)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지사장 이상현)와 차담회를 갖고,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차담회에는 부산시회 김형겸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상현 부산지사장 등 양 기관 주요 인사 5명이 참석하여 △퇴직공제부금 인정납부제도 확대 및 기준 완화 △전자카드제도 활성화에 따른 미준수 근로자 관리 방안 등 건설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과 제도적 개선 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김형겸 부산시회장은 “건설근로자의 복지 증진은 곧 건설 현장의 안전과 시공 품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공제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퇴직공제부금 기준 완화 등 전문건설업계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상현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장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건설근로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05

동래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양해각서(MOU)협약 체결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3월 31일(15:00 /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4층 소회의실) 장준용 동래구청장과 동래구 관내 건설대기업 8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갖고, 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부산시회 김점식 부회장은 "부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공사의 실시공을 전담하면서 건설근로자의 고용을 창출하는 부산 전문건설업체가 70%이상 하도급에 참여 될 수 있도록 시공사와 구청관계자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당부"하며, "우리시회도 회원사의 부실 시공 예방과 안전의식 확립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래구-협회-건설대기업간 업무협약(MOU)을 하는 만큼, 참석한 건설대기업 관계자에게 부산전문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이 70%이상 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을 당부"하였다.



사회공헌활동

01

영도구 관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쌀나눔 전달식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2월 24일(14:00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영도구 관내 소외계층 돕기 쌀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기탁된 쌀1,000kg은 사회복지관과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가구에 고루 전달되어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될 예정이다. 김형겸 회장은 “준비한 성품이 지역의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문건설인들의 정성을 모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02

2026년 이웃돕기성금 모금 결과

부산시회에서는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1월 5일부터 2월 2일까지 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실시했다.

그 결과 172개 회원사가 참여하여 총 6,890만원의 성금이 모금되었으며, 모금된 성금은 부산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돕기 장학금, 취약계층 생계비지원(연탄지원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기탁 할 계획이다.

2026년 이웃돕기 성금 모금 결과

(고액, 상호순)

(단위 : 원)

연번	상 호	대표자	모금액	연번	상 호	대표자	모금액
1	지산특수토건(주)	김형겸	3,000,000	29	(주)한서철도	신사완	1,000,000
2	거북건설(주)	이주상	2,000,000	30	홍산건설(주)	신상기	1,000,000
3	건진개발(주)	심수율	2,000,000	31	(주)금강고려하우징	권동근	500,000
4	(주)보광	윤영갑	2,000,000	32	(주)금정토건	문준식	500,000
5	(주)일성기업	천상우	2,000,000	33	다림조경(주)	이경훈	500,000
6	(주)제일공사	박수근, 박성환	2,000,000	34	동우건설(주)	이기태	500,000
7	천지개발(주)	임철규, 임상완	2,000,000	35	(주)라이프하우징	탁규오	500,000
8	(주)홍산건설산업	강용호, 강재원	2,000,000	36	민성건설(주)	서영철	500,000
9	거북토건(주)	박토환	1,000,000	37	(주)보문하우징	김채용	500,000
10	녹화조경(주)	김점식	1,000,000	38	(주)사오건설	오탈진	500,000
11	(주)다인산업개발	박미란	1,000,000	39	수석건설(주)	김창현	500,000
12	대한기술개발(주)	신미옥	1,000,000	40	신신이앤지(주)	고정자	500,000
13	(주)덕재건설	김운석	1,000,000	41	야후건설(주)	김병흠, 김정섭	500,000
14	명작건설(주)	박정구	1,000,000	42	(주)엔텍건설	나영찬	500,000
15	(주)보성건설	변기홍	1,000,000	43	엘코미(주)	윤예숨	500,000
16	(주)삼성도장	이관옥	1,000,000	44	(주)연동	반백철	500,000
17	(주)삼신퍼스틸	임호성	1,000,000	45	(주)우성엔지니어링	최상대	500,000
18	삼지건설(주)	이태원, 이효정, 이소영	1,000,000	46	태영건업(주)	박판용, 박대관	500,000
19	새벽건설(주)	김정수	1,000,000	47	한림정공(주)	김상철, 강정민	500,000
20	(주)서우산업	이준희	1,000,000	48	(유)해밀산업개발	이명환	500,000
21	(주)서한기업	서쌍철	1,000,000	49	예인건설(주)	허성규	400,000
22	(주)세광	엄세현	1,000,000	50	(주)거도산업	김도윤	300,000
23	(주)신아건업	윤정필	1,000,000	51	거보건설(주)	정영만	300,000
24	(주)창선건설	김동석	1,000,000	52	(주)공간조경	정석봉	300,000
25	(주)천진	심재복	1,000,000	53	(주)국일안전	최화자	300,000
26	(주)청복건설	정귀자	1,000,000	54	(주)대신산업개발	박성열	300,000
27	태영토건(주)	진성희	1,000,000	55	(주)대양산업건설	오종출, 김진형, 김재호	300,000
28	(주)테크유니온	신유정	1,000,000	56	(주)비엠	배미애	300,000

(고액, 상호순)

(단위 : 원)

연번	상 호	대표자	모금액
57	(주)삼영건설	조윤설	300,000
58	석봉건설(주)	한상호	300,000
59	섬진건설(주)	박종열	300,000
60	성진건설(주)	심형민	300,000
61	세고엔텍	김윤완	300,000
62	(주)아랑존디	우범용	300,000
63	영빈건설(주)	이준우, 김재진	300,000
64	(주)원디자인	윤기원	300,000
65	(주)이플랜	유진철	300,000
66	(주)일상건설	김철호	300,000
67	(주)일진아이앤씨	강병식	300,000
68	재은건설(주)	박남이	300,000
69	(주)창성공영	안병호	300,000
70	태현건설(주)	권태인, 권슬기	300,000
71	(주)통영산업건설	강재준	300,000
72	경남종합조경	송유경	200,000
73	광명환경(주)	이광식	200,000
74	(주)금신건설	문정찬	200,000
75	금탑건설(주)	이종범	200,000
76	남산조경	박쌍수	200,000
77	(주)다동건설	한정옥	200,000
78	대명토건(주)	강진구	200,000
79	동남창호(주)	나기주	200,000
80	동우기업	최원용	200,000
81	(주)미주건업	박은희	200,000
82	(주)바른건설	김대혁	200,000
83	(주)방도기업	정용채	200,000
84	(주)부경프라임건설	강옥동	200,000
85	(주)부근건설	신중근	200,000
86	(주)빅인테리어	김상열	200,000

연번	상 호	대표자	모금액
87	(주)삼강기업	정은재	200,000
88	상화건설(주)	정인호	200,000
89	서연건설(주)	황경숙	200,000
90	(주)소라	김소라	200,000
91	(주)숲을가꾸는사람들	고대규	200,000
92	실크로드산업(주)	김덕수	200,000
93	알엔비이앤씨(주)	김현호	200,000
94	우진조경개발(주)	김준기	200,000
95	유창중건설	김영주	200,000
96	윤슬건설(주)	박언희	200,000
97	(주)장민건설	김성부	200,000
98	(주)정우석재	송우철, 이종건	200,000
99	창비토건(주)	장명순	200,000
100	청록건설(주)	정혜숙	200,000
101	한국라이텍개발(주)	황성도	200,000
102	한일금속	주병규	200,000
103	해진건설(주)	이상호	200,000
104	(주)호연건설	서주향	200,000
105	(주)화성건설	변용규	200,000
106	가산조경개발	조성민	100,000
107	강호건설(주)	강성호	100,000
108	(주)건양산업	정종원	100,000
109	건창이앤씨(주)	손인영	100,000
110	경성이앤씨(주)	이제경	100,000
111	경신산업개발(주)	정순덕	100,000
112	광민건업(주)	최형선	100,000
113	(주)광토건설	백성효	100,000
114	(주)국일에스에프건설	이기덕	100,000
115	(주)국토건영	차수열	100,000
116	(주)금아건설	이군범	100,000

(고액, 상호순)

(단위 : 원)

연번	상 호	대표자	모금액
117	(주)나원	김대홍, 권순영	100,000
118	남우산업개발(주)	황규진	100,000
119	(주)남인건설	김동수	100,000
120	다풍건설(주)	이강욱	100,000
121	대경건설(주)	이군희	100,000
122	(주)대명에스씨아이	정현영	100,000
123	(주)노은	박노환	100,000
124	대산건설	신현상	100,000
125	대성산업종합환경	박쌍윤	100,000
126	(주)대왕석재	양정식	100,000
127	(주)대흥기업	정용주	100,000
128	(주)더난건설	손승욱	100,000
129	(주)덕성해양개발	이득생	100,000
130	동명종합건축	강태환	100,000
131	(주)동신창호	최순자	100,000
132	(주)동아피앤씨	홍종욱	100,000
133	(주)두산산업개발	박세진	100,000
134	(주)디엠플랜	박형용	100,000
135	(주)디자인포유	남인찬	100,000
136	(주)디케이산업	이순창	100,000
137	모아산업개발(주)	윤주영	100,000
138	범창종합건설(주)	임영희	100,000
139	보라건설조경(주)	김성희	100,000
140	(주)보륜건설	반명숙	100,000
141	부강개발(주)	고천석	100,000
142	(주)부산광역시주거복지센터	서상복	100,000
143	(주)봉조건설	조홍제	100,000
144	비엘티중앙엘리베이터(주)	한명관	100,000
145	사직건설(주)	배병윤	100,000
146	산양건설(주)	정진갑	100,000

연번	상 호	대표자	모금액
147	(주)서진조경	류향복	100,000
148	(주)성심	유미애	100,000
149	성훈건설(주)	김철훈	100,000
150	센텀엘앤씨(주)	임성원	100,000
151	송월건설(주)	이미영	100,000
152	수영석재산업(주)	문기찬	100,000
153	(주)신성골차	김대섭	100,000
154	신우개발	김문곤	100,000
155	신창건영(주)	노현숙	100,000
156	에스엔케이건설(주)	김장우	100,000
157	옥상건설(주)	박동호	100,000
158	(주)중산산업개발	이대건	100,000
159	(주)천봉	정지연	100,000
160	(주)청명이앤디	안영준	100,000
161	(주)청산산업	강성구	100,000
162	(주)청호이.엔.지	손승욱	100,000
163	(주)코로코트코리아	김성환, 편도주	100,000
164	토림조경건설(주)	조옥자	100,000
165	하나해상개발(주)	임창수	100,000
166	(주)한수유티텍	손영규, 홍회영	100,000
167	(주)한일개발	이종철	100,000
168	(주)해신석재	조영철	100,000
169	해웅수중개발(주)	이주천	100,000
170	(주)현대금속	구자천	100,000
171	현복엔지니어링	김양완	100,000
172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협회직원일동	500,000
합 계			68,900,000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수주지원

01

직접시공 원칙 확립을 위한 전문건설사업자 참여 확대 협조

'21.1.1일부터 전문·종합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전문공사가 종합공사로 바뀌어 발주되거나 소규모 전문공사에 이르기까지 종합업체의 무차별적인 진입이 허용되는 등의 불공정 현실 속에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생존권이 날로 위협받고 있다.

특히, 제도 시행 이후 전문공사가 종합공사로 전환되어 발주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소규모 공사까지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전문공사의 직접시공 원칙이 약화되고, 전문건설사업자의 수주기회가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등 제도 취지와 괴리된 발주 관행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호시장 진출 제도의 본래 취지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전문공사라 할지라도 발주자가 시공품질 확보 등을 사유로 전문건설사업자로만 제한하여

발주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잇따라 하고 있으며, 또한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공사 발주제도의 이해」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여, 전문공사가 종합공사로 과도하게 전환되지 않도록 주된 공종, 부대공종의 성격 및 공사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주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1월 5일 부산광역시 주요 발주기관에 위장 직영 시공, 다단계 불법 하도급 등의 사회적 문제점 근절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실시공을 전담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국토부에서 제작배포한 교육자료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공사 발주제도의 이해」를 전달하였다. 아울러 연간단가공사에 대한 실시공 전문건설사업자로의 제한발주 협조 등, 회원사 일감확보를 위해 16개 구·군청 발주부서 및 재무과를 순회 방문하여 전문건설업계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조력을 구하고 있다.

02

연간단가공사에 실시공 전문건설사업자 단독 발주 협조

부산시회는 1월 5일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청 및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도로굴착 복구공사 등의 연간 단가공사 발주시, 전문과 종합의 상호진출이 허용된 4.3억 이상의 공사라 할지라도 전문공사 단독으로 발주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도로굴착 복구공사, 하수관거 정비공사, 차선 도색공사 등의 연간단가공사 경우, 1건 단위 공사금액이 소액에 불과하며 전문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많은 시공경험을 갖춘 전문건설업체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것이 유리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연간단가 공사의 경우 공사에정금액이 4.3억원 이상이라도 현장여건, 기술능력

등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건설사업자로만 제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하였다.

이에 부산시회는 해당 전문건설사업자로만 제한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더불어 실제 전국적으로 전문건설사업자로 입찰자격이 제한되어 발주되는 많은 사례들을 관련 기관에 안내하여 위장직영과 같은 불법 하도급의 근절, 신속한 유지보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안전사고 사전 예방 등, 건설공사 직접시공 문화가 건설산업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수주지원

03

공동주택정보관리시스템(K-apt) 건설공사 입찰정보 적극 활용 안내

타 지역 주택 공사도 낙찰 받을 수 있어,

부산시회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 업무영역의 준수를 위해 실시간으로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K-apt)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일률적, 관행적으로 잘못 발주된 공사를 해당 전문건설업으로 정정조치 하는 등 회원사의 수주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부산시회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경우 영업지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되어있기에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라도 타 지역 공동주택 발주공사에도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한 건설공사 입찰정보 조회 방법을 1월22일 회원사에 안내하였다.

04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의 2026년도 공공공사 시행계획 안내

부산시회는 2월 2일 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 공사·공단 등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수집한 「2026년도 공공공사 발주계획」 자료를 회원사에 안내하며, 건설공사 수주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5년도 공공공사 발주계획

연번	발주기관	발주건수	공사예정금액	비고
1	부산광역시	24 건	61,023	
2	부산광역시 산하 사업소	412 건	885,885	
3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30 건	1,094	
4	부산광역시 구·군청	891 건	671,369	
5	부산 공기업(공사, 공단 등)	425 건	166,168	
6	중앙 공기업(공사, 공단 등)	148 건	741,310	
7	부산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358 건	259,676	
8	출자·출연기관	86 건	29,420	
계		2,374 건	2,815,946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알림판 또는 회원전용공간 → 건설공사정보 → 발주계획에서 확인 가능하다.

수주지원

05

부산지역 우수 전문건설산업자 역량강화(Scale Up) 지원

부산시회는 2월 25일 부산광역시(하도급관리팀)와 공동으로 실적 등이 우수한 부산전문건설사업자로서 건설대기업 협력업체 등록을 희망하는 회원사를 선정해 기업 경영컨설팅을 통한 건설대기업의 협력업체 등록 및 하도급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6 부산 전문 건설산업 역량강화(Scale Up) 사업」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이에 3월 13일 최종 31개 업체가 선정(전문건설사업자 25개사, 설비건설사업자 6개사)되었으며, 향후 참여업체에 대한 부산광역시(하도급관리팀)와 용역기관의 진단결과를 기반으로 기업체질 개선 및 역량강화 등을 통해 건설대기업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맞춤형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06

공동주택 건설공사 전문건설업 발주 추진

부산시회는 3월 23일 부산지역 15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 1,081곳을 대상으로 건설업 업종별 업무내용을 안내하고, 공동주택 건설공사 발주 시 해당 전문 건설업으로 발주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과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해당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건설공사의

입찰정보를 안내함에 있어, 입찰참가 자격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 보유 여부를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에 해당되는 전문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당 건설공사 발주시 해당 전문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일률적인 종합건설공사업으로의 발주를 지양하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 업무영역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 발주를 협조 요청했다.

07

건설업 무등록 시공 근절 추진

**건설업 무등록 시공 근절 홍보문
시·구(군),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게재 건의**

부산시회는 3월 23일 △부산광역시청 및 16개 구(군)청, △부산지역 150세대 이상 아파트관리사무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관련단체, △부산광역시 소재 6개 대학교,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한 광고를 게재한 후 실내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등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건설업 무등록 시공 혐의 업체 등을 대상으로 건설업 무등록 시공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추진했다.

부산시회는 건설업 무등록자로 인해 건전한 건설거래 질서가 문란해지고 적법하게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수주를 방해하고 있음에 따라 전문건설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다.

또한, 건설업 무등록 시공 혐의 업체에게는 전문건설업 등록방법과 협회 회원 가입시의 혜택 등도 함께 안내했다.

부산시회는 건설업 무등록자가 건설시장에서 난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건설업 무등록시공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 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01

건설공사 발주 시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

과도한 실적 제한 개선 및 지역 전문건설업체 기회 보장 촉구 “합리적 입찰 기준 설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해야”

부산시회는 1월 22일 최근 지역 농·축산업협동조합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과도한 입찰 제한을 개선하고 지역 전문건설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부산시회는 건의문을 통해 일부 농·축협이 시설공사 입찰에서 사업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실적 요건이나 제한적인 평가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 공사임에도 이를 크게 상회하는 단일 실적을 만점 기준으로 설정하는 사례가 있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의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한적 입찰 방식은 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체의 기술력과 가격을 비교할 기회를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시회의 입장이다.

이에 부산시회는 각급 농·축협에 공공적 성격에 걸맞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의 취지를 참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사의 난이도와 규모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실적 평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역량 있는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으로도 부산시회는 전문건설업계의 공정한 수주 환경 조성과 권익 보호를 위해 발주기관과의 소통 및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02

지방계약제도 개선 관련 민관합동 TF 건의사항 제출

부산시회는 1월 27일 지역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공공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지역제한 입찰 기준 금액을 현행 10억 원 미만에서 20억 원 미만으로 현실화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문공사의 지역제한 입찰 기준은 2019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으로 묶여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원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 공사 원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과거 10억 원 미만이었던 공사들이 현재는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역제한 효과가 크게 반감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종합공사의 지역제한 기준을 기존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전문공사는 검토 대상에서 배제되어 업종 간 형평성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상대적인 소외감과 함께 심각한 수주 절벽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전문공사 및 기타 공사의 지역제한 대상을 현행 10억 원에서 20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시회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부산시회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이라는 현실적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낮은 기준이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종합공사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지역 경제의 뿌리인 전문건설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0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 의견제출

부산시회, 전문공사 보호구간 ‘10억 원 상향’ 및 ‘관급자재 제외’ 강력 건의

부산시회는 2월 11일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과 관련하여, 전문공사 보호구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보완 의견을 제시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부산시회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전문공사 보호구간 일몰 연장 취지에 깊은 공감을 표하면서도, 현행 4억 3천만 원이라는 보호 기준은 최근 급등한 자재비와 노무비 등 현장의 고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회는 건의문을 통해 “공사 원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과거 소규모였던 공사들이 현재는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호구간 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이를 영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보호구간 산정 방식의 변화다. 시회는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가 포함된 금액 기준은 공사의 실제 난이도와 시공자의 책임 범위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보호구간 10억 원 적용 시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순수 시공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소규모 전문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들이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감내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호구간 내 공사에 대해서는 급격한 물가 변동 시 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발주자와의 협의·조정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산시회 관계자는 “이번 건설법 개정은 위기에 처한 전문건설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전문공사 보호구간의 실질적인 기능 회복과 공정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개선

04

2026년 민관합동 기업규제발굴단 규제개선 과제 제출

전문건설 수주 절벽 해소 총력

부산시회는 2월 24일, 2026년 민관합동 기업규제발굴단에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 개선 과제 2건을 제출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건의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 원가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의 수주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현장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법령 적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진되었다.

먼저 부산시회는 지방 공공공사 입찰 시 적용되는 '직접시공 배점제'의 폐지를 강력히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30억 원 이상 종합공사 시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하도급에 의존하는 전문건설업계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산시의 '지역업체 70% 하도급 권장' 조례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오히려 지역 내 건설 자본의 선순환을 가로막고 있다. 시회는 강제적인 직접시공 대신 '상생협력 실적'이나 '안전비 확보율' 등 실질적인 품질·안전 중심의 평가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소규모 공사 발주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부대공사 범위를 현행 3억 원 미만에서 5억 원 미만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2019년 이후 고착된 '3억 원' 기준은 급격한 물가 상승과 자재비·노무비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해, 현장에서 원활한 복합공사 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부산시회는 이를 5억 원으로 현실화함으로써 공사 발주 및 수주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세 업체의 행정적 부담을 대폭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회 관계자는 “이번 건의는 단순한 민원 제기를 넘어 지역 경제의 뿌리인 전문건설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모래주머니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년 1/4분기 건설신기술 현황

지정번호	개발업체	신기술명	주요 내용
1040 (2026.01.02)	(주)하영이앤씨, (주)디에스글로벌 이씨엠, 극동엔지니어링(주), (주)케이씨아이	중앙부 상면 콘크리트 블록과 시·종점 단부 상면에 전단블록 이 설치된 PSC 거더 및 시공기 술 (SOC 거더)	PSC 거더의 중앙부 상면에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여 단면 2차 모멘트와 내구성 증가로 단면 강성 증가 및 거더형고 감소가 가능 하고, 거더 시·종점 단부 상면에 전단블록 설치로 거더와 바닥판의 전단합성효과를 개선하여 합성효과 증대를 위해 강판, 강봉 등을 사용하지 않는 콘크리트 블록 설치 PSC 거더 제작 및 시공기술
1041 (2026.01.02)	(주)대기건설, (주)다해컨스텍, (주)대기토건, (주)대호이앤씨	습윤 환경용 폴리머 모르타르 및 기능형 세라믹 표면보호재 와 롤링피니셔 장비를 활 용 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공법 (SEA-SYSTEM)	콘크리트의 열화 손상 부위에 세척, 녹제거, 방청 등 표면 정리 후 자재 운반 및 시공이 가능한 충전식 무선조정 바닥면 시공용 롤링 피니셔 장비를 활용하여 필요 수분만 유지시키는 습윤 환경용 모 르타르를 충전하고 표면에 세라믹 보호재를 시공하는 콘크리트 구 조물 보수공법
1042 (2026.01.16)	(주)제이투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주)	도로 비산방지 시스템 및 자세 제어 기능을 탑재한 무인 도장 장비 기반의 스마트 외 벽 도장 자동화기술	도로 시공 중 장비가 바람 등의 영향으로 수직(Z)축으로 3도 이상 변위가 발생 될 경우 장비에 탑재된 수평센서가 이를 감지하여, 자동 으로 도장 장비를 원점으로 복원하고, 피도장면에 단일색상의 전용 비산방지 도로로 균일한 도막을 형성하며, 시공 중 도로 품질을 검측 하는 고해상도 카메라, 고도센서, 미세먼지 센서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지상의 장비 운영자에게 실시간 송신되며, 문제발생 시 원격 제어가 가능한 무인 도장 공법
1043 (2026.02.13)	(주)메이크순, 두산건설(주), 에이치엘디앤아이 한라(주), 롯데건설(주)	수직·수평배관 일체형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의한 배 관지지 기술	가스배관, 위험물 이송배관, 급수배관 및 소화배관을 지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직·수평배관을 1개의 배관연결장치에 2개의 지지대를 연결하여 4방향으로 배관을 지지하여, 기존에 2개의 배관 연결장치를 1개로 설치함에 따라 모멘트를 저감하여 안전성을 높이 고 경제성을 개선하는 기술
1044 (2026.02.20)	(주)덕암테크, (주)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주), 효성중공업(주)	사선형 수직 내다이어프램이 설치된 기동부 각형강관과 전 단홀이 형성된 근입부 원형 강 관을 이용한 선기초 기동공법 (ES-Col 공법)	보의 접합 위치 및 크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선형 수직 내다이어프램이 접합부에 설치되어 콘크리트가 충전되는 기동부 각형강관과, 근입성 및 수직도 확보가 용이하도록 전단홀이 형성되 어 콘크리트 기초파일에 근입되는 근입부 원형강관을 일체로 연결 하여 역타 공법에 적용하는 선기초 기동공법
1045 (2026.03.06)	(주)선엔지니어링종합 건축사사무소, (주)원양건설	알루미늄 필름과 PE폼으로 구 성된 PS시트재를 사용하고, 보 강날개 및 보강재를 통해 맞댐 과 겹침구조를 형성하는 노출 방수공법 (PPAS System)	알루미늄 필름과 가교 발포한 폴리에틸렌을 합지한 PS시트재의 상부에 폴리우레탄계 PS도막방수재를 도포하여 옥상 및 슬래브 상부의 바탕면 상태와 열화로부터 발생가능한 방수층 손상을 방지 하고, PS시트재 끝단부의 보강날개를 활용하여 맞댐 및 겹침구조가 복합 적용된 이중보강 구조를 형성하여 접합부의 안정성을 향상 시킨 방수기술

지정번호	개발업체	신기술명	주요 내용
1046 (2026.03.06.)	경용개발(주), 경용건설(주)	표면 디보싱 구조 처리기술을 통해 소재 간 일체성을 확보한 이중복합방수기술 (KY-PRO System)	표면 디보싱 처리 기술이 적용된 자착식 방수시트와 그 상부에 친환경 도막재를 활용하여 복합방수층을 형성하는 기술로서, 시 트재는 재생 오일(파라핀유)을 활용하고 다층 제조기술을 적용하 였으며, 시트재 상부 표면에 일정 간격의 디보싱 처리를 통해 상부 적층 도포되는 도막재가 디보싱 부위에 충전되도록 유도함으로 써, 시트재 표면과 도막재 간 물리적 앵커링 효과를 확보하여 이질 재간 일체성 확보 및 복합방수층의 형성이 가능한 기술로, 순환자 원의 활용 문제와 방수안정성 저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노출 복합방수공법

※ 출처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www.kcnet.or.kr) → 신기술현황 → 지정현황(건설신기술)



전문건설인 비전과 도전



(주)이플랜
대표이사 **유진철**

여기 탁월한 판단력으로 험한 세파를 헤쳐 온 전문건설인이 있다. 그는 어느 건설사업가라면 겪어봤을 부도 등 실패 경험이 없을 정도로 흐름을 잘 읽었다. 유진철(63) (주)이플랜 대표.

사하구 당리동 사무실에 들어서니 독특한 풍경이 펼쳐진다. 색소폰과 전자기타, 전자키보드를 비롯한 각종 악기와 음향기기, 마이크가 정면을 채우고 있다. 음악에 대한 유 대표의 특별한 취향을 알 수 있다. 고단한 업무에 지친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한 그의 따뜻한 배려심이 짙게 느껴진다.

유 대표는 전북 익산 출신이다. 어릴 때부터 영민했던 그는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자산업 육성을 위해 세웠던 경북 구미의 국립구미전자공고에 국비 장학생으로 당당히 들어갔다. 하지만 대학에 진학할 형편이 되지 않았던 그는 20대 초반 학업의 꿈을 접고 과감하게 부산에서 사업에 뛰어들었다.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 걸 안 지인의 권유로 1986년 음악학원을 함께 시작했죠.” 아하, 사무실에 왜 음악 시설이 있나 했더니 그의 학원 교습 과도 관련이 있는 거였구나 싶었다.

과외가 한창 유행하던 터라 사업이 순풍을 탔다. 자신감이 붙었다.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이벤트 사업을 시작했다. 보이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 행사를 대행했고 캠프 이벤트 행사를 맡았는데 이 또한 ‘대박’이었다. “여름철 수영장과 텐트촌 등을 갖춘 양산 삼남캠프장을 오픈했는데 실 새 없이 관광버스들이 들이닥쳐서 즐거운 비명을 질렀죠.”

하지만 그에게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다. 폭우가 내리고 강풍이 부는 상황에서 고민 끝에 캠프장을 열었는데 아뿔싸, 그만 사고가 터지고야 말았다. 산사태가 발생해 캠프장 인근까지 덮쳤던 거다. 인명 피해가 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사업이었지만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해 과감하게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때가 30대 초반이었다.

외환위기가 터졌던 1997년 그는 결혼과 함께 새 업종에 몸을 던졌다. 남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암담해했던 그 시절, 그는 오히려 역발상의 기회로 삼은 것이다. 고민 끝에 선택한 게 인테리어였다.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그가 과거 닦아냈던 학원과 유치원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여기에 책걸상 등 교육기자재 사업을 병행했다. 유 대표는 둘다리도 두드러가며 건너는 심정으로 신중하게 확인했고, 철저한 준비 끝에 행동으로 옮겼다. 역시 ‘대박’이 났다. 과거부터 그를 눈여겨봤던 고객들이 너도나도 주문을 쏟아냈다. 그도 열심히 땀을 흘리며 보답한 덕분에 회사의 덩치가 날로 커졌다. 드디어 2008년 그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내고 본격적으로 전문건설업 현장에 뛰어들었다.

별 탈 없이 순조롭게 사업을 하던 그는 공부에 대한 갈증을 느꼈고, 50대 중반에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에 진학해 만학의 꿈을 펼쳤다. “인테리어와 부동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서 늦었지만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4년 전 사업과 공부를 접어야 할지도 모를 상황에 직면했다. 안면신경마비가 온 것이다. 얼굴을 움직일 수 없는 고통으로 그는 수

개월 간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절망에 빠졌다. 하지만 이번에도 적극적인 치료와 가족의 도움으로 증상은 회복되었다. 학업 또한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사업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유 대표는 사업가로서 행운이라고 자평한다. 해왔던 사업마다 실패를 몰랐기 때문이다. 8년 전 오피스텔 공사비 수익 원을 떼었지만 사업을 접을 정도는 아니었다. 요즘 종합건설사들이 소규모 공사까지 맡는 등 사업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지만 어떻게든 이겨낼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 행운의 지속 조건으로 안전과 성실, 그리고 정직 시공을 꼽았다. “한 카드사 인테리어 공사 때 한창 작업이 진행되던 중 천정이 한쪽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꺼번에 내려앉았다면 큰 인명 피해가 날 뻔했어요. 사고 조사 결과 저희 잘못이 아닌 게 드러났지만,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절감했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캠프촌 산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안전을 위해서라면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 또한 공기는 어떻게든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고객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설사 적자를 보는 한이 있어도 말이다.

그는 새로운 변신을 준비 중이다.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 중 리모델링이 그의 타깃이다. “부산에 노후주택촌이 많아요. 초량동 산복도로나 좌천동, 전포동 등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해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유 대표가 한 가지 아쉬움을 토로했다. ‘축이 좋다’는 말은 사업의 흐름을 재빨리 판단해 방향을 바로잡는 것을 뜻한다. 그는 축이 좋아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무난하게’ 사업을 해왔다. 하지만 그게 반가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다. “실패를 해봐야 크게 깨우치고 도약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웁거니! 야구를 보라. 3할을 치면 성공한 타자다. 10번 중 7번을 실패 하나 그 누구도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실패란 일의 과정에서 흔하게 겪는 경험의 일부일 뿐이다. 어두워야 밝음의 가치를 알 수 있고, 실패해야 성공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그는 전문건설협회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다. “협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다 보니 김형겸 부산사회장님을 비롯한 협회 임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를 마음에 깊게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 회원사들이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기에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글 최원열

01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하도급법 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그간 우리 협회가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현장의 대금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해 온 노력의 결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사금액 1천만 원 이하인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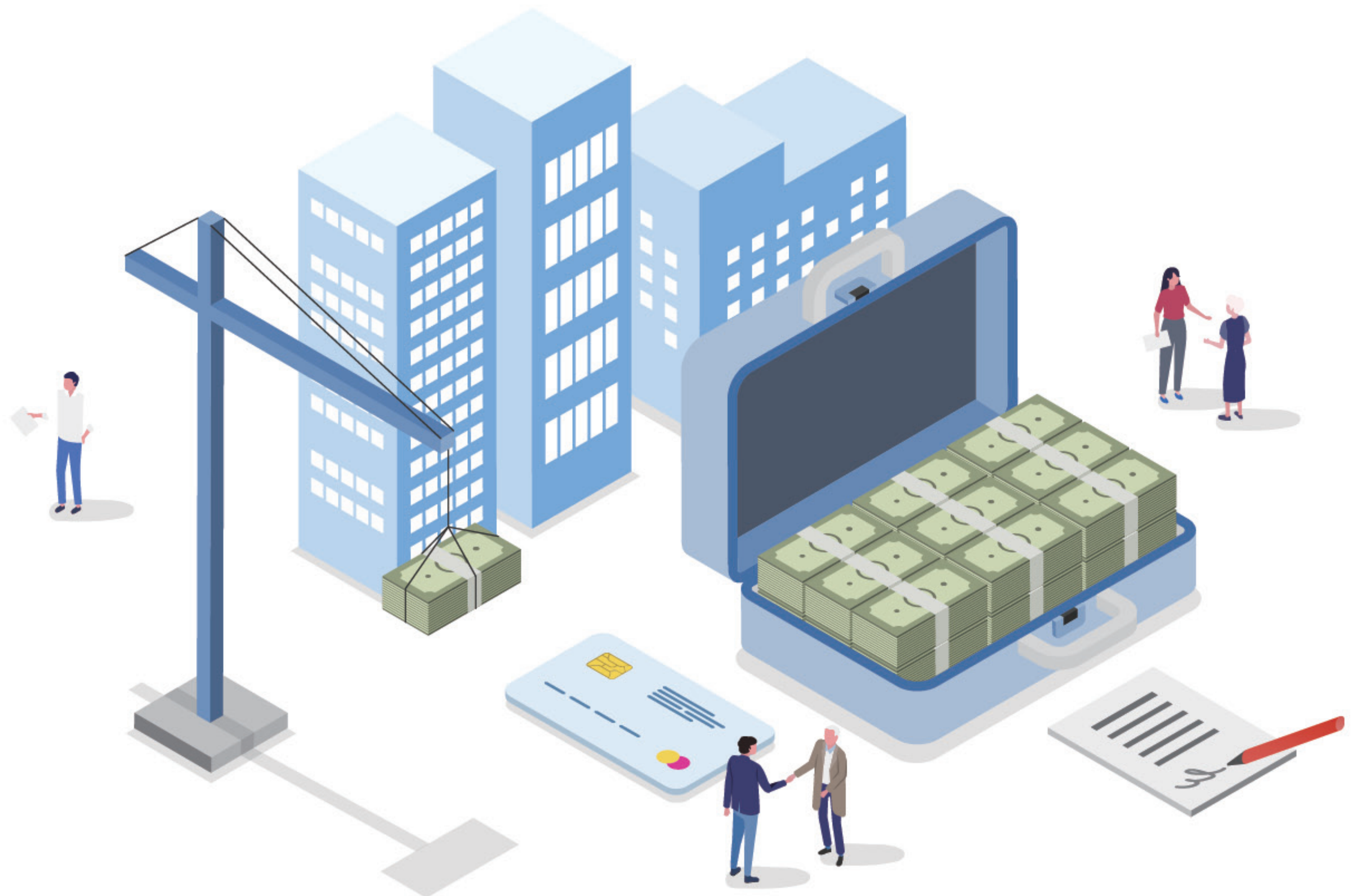
1. 개정 주요 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강화
 - 그간 인정되던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등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삭제하고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 의무화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 기존 원재료 가격뿐만 아니라 '주요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도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

2. 시행일 : 2026.8.11.(월)부터

※ 시행일인 2026년 8월 11일 이후 하도급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1 | 2026년 상반기 적용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 안내

해양수산부에서 「2026년 상반기 적용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를 다음과 같이 확정·공고하였다.

1. 2026년 상반기 적용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항목

계	기존	신규	삭제
315	315	-	-

2. 목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 결정에 기초자료 되는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제공

3. 적용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만법」에서 정하는 항만시설, 「어촌·어항법」에서 정하는 어항시설, 연안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연안보전시설의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4. 적용일시 :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5. 기타사항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홈페이지) 해양수산부(<https://www.mof.go.kr/index.do>) → 알림·뉴스 → 공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2 |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안내

2026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단순노무종사자의 임금이 법정 최저기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최저임금 인상 현황 및 영향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87.745% 등)을 곱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출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례 발생 가능

2. 계약금액 조정 및 준수사항

- 단순노무종사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반드시 계약금액 조정 필요
- 근거법령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 조정 목적 : 해당 종사자가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 이상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03 | 건설현장 건설기계 연식·조종사 연령의 과도한 제한 자제 안내

최근 일부 건설현장에서 사고 예방 등을 이유로 건설기계 연식이나 조종사 연령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및 부산광역시에서는 과도한 제한의 자제를 요청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 및 조종사 제한에 따른 문제점

- 신규장비 선호로 인한 건설기계 대여업체의 장비 확보 부담 및 경영 악화
- 고연령 인력 기피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숙련공 대신 미숙련 조종사 투입 증가
- 결과적으로 건설현장의 안전 환경 조성 저해 우려

2. 자제 요청 및 유의사항

- 법정 정기검사에 합격하여 안전성이 검증된 건설기계 사용 보장
- 적성검사에 합격한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정당한 작업 기회 제공
- 단순 연식 또는 연령을 이유로 한 현장 투입 제한 행위 근절

04 | 2026년도 건설기계의 기계경비 산출표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공공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건설기계의 기계경비 산출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2026년도 건설기계의 기계경비 산출표」를 제작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 또는 “신기술·원가정보 - 기계경비산정”에서 확인 가능하다.

05 |

발주처 사칭 금융사기(노쇼·대리구매)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관공서·공공기관·기업 등을 사칭하여 공사 의뢰를 가장한 뒤, 물품 대리구매 및 선입금을 유도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다. 우리 협회는 경찰청(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협력하여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회원사에서는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쇼사기 범행수법

- 관공서나 기업을 사칭하며 공사 등을 맡길 것처럼 행세
- 정해진 업체에서 특정 물건을 대신 구매해서 함께 납품해달라고 요청
- 공법인 업체는 피해자가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저렴하게 물건을 팔겠다고 선결제 요구
- 물품대금을 받으면 연락을 끊고 잠적

2. 노쇼사기 예방수칙

- 전화로 주문을 받으면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반드시 재확인
- 업체를 지정하는 대리구매 요청은 100% 사기 → 즉시 거절
- 첫 거래는 에스프로 서비스(안전결제 방식) 이용
- 의심스러운 전화는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1394)

※ 경찰청 노쇼사기 예방수칙 리플렛 등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6 |

불공정 하도급 익명제보센터 적극 활용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보복 우려로 은폐된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시정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26. 1. 29.)」을 발표하였으며, 우리 협회 또한 원사업자의 보복 우려 없이 불공정 행위를 제보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익명제보 및 상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익명제보 및 상담채널 사용방법

계	기존	신규
공정위 익명제보센터	www.ftc.go.kr	메인화면 「민원·참여」 → 「공정위(익명)제보하기」 → 「익명제보센터」 선택
전건협 불공정 하도급 상담센터	www.kosca.or.kr	메인화면 상단 「민원센터」 → 「불공정 하도급 상담센터」 접속 → 상담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clean@kosca.or.kr) 발송
코스카톡(KOSCA Talk) 신문고	모바일 앱 (코스카톡)	앱 다운로드 및 로그인(대표자) → 「신문고」 메뉴 → 「글쓰기(비공개여부 체크)」 → 작성 완료

07 |

2026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 사업 안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2026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전액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1. **신청대상** :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기업 등
2. **신청방법** : 안전보건공단과 계약한 민간전문기관에서 사업장 방문 컨설팅 실시 (최대 7회)
3. **컨설팅혜택** : 안전보건공단 재정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 안전일터·건강일터 조정지원 사업 안전동행지원사업 우선선정 가점 부여 등
4. **컨설팅비용** : 무료(정부 100% 전액 지원)
5.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안전보건공단 광역지역본부 신청서 제출
* (제출방법) 방문접수, 팩스 및 우편, 이메일
 - 온라인 : 홈페이지 또는 QR코드 접속
*(주소) <https://kosha.or.kr/constreq> / QR코드 접속 후 신청서 작성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8 |

건설현장 안전정보 공유 채널 '영남건설안전365' 활용 안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영남권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실시간 안전 정보를 공유하는 '영남건설안전365'(카카오채널)를 운영하고 있다.

1. **주요내용** : 건설 관련 법령·지침, 교육 자료 및 사고 사례 공유
2. **가입방법** : 스마트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 후 '채널 추가'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9 |

건설사업자의 주요 신고·통보제도 이행 철저 안내

부산시회는 3월 12일 건설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한 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신고 및 통보 제도에 대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특히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시 최근 공사대금 수령사항 등의 세부 기재사항 누락까지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잇따라, 기재사항 변경이 발생할 경우 빠짐없이 통보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 건설업 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 시행령 제12조의3, 시행규칙 제9조)

-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위반시 제재사항(동법 제100조 제1호)
 - 과태료 1차 : 30만원, 2차 : 50만원, 3차 이상 : 50만원

2. 건설공사 도급(하도급) 계약서 작성(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 시행령 제25조)

-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 계약서에 명시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
-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권고
- 위반시 제재사항
 - 계약서 미작성 : 과태료 150만원(동법 제99조제2호)
 - ※ 단, 하도급인 경우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
 -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과태료 50만원(동법 제99조 제2호)

3.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 통보(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시행령 제26조)

-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
-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www.kiscon.net)
-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계약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www.kiscon.net)

· 위반시 제재사항

- 시정명령(동법 제81조 제3호)
-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1차 : 100만원, 2차 : 200만원, 3차 이상 : 400만원(동법 제99조 제3호)
- ※ 단,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 포함)의 기재사항 통보를 공사 완료일까지 통보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할 경우 즉시 과태료 처분
- ※ 공사(변경)계약 체결 30일 이내 건설공사대장 통보를 하였을 경우에는 통상 과태료 대상이 아니었으나, 최근 공사대금 수령 사항 등의 세부 기재사항 누락까지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잇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이 발생할 경우 모두 통보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
- ※ 물품·납품 등을 현장설치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시공(현장설치) 후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공사에 해당되므로 시공능력평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 통보를 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3항, 시행령 제34조의 4,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수급인(원사업자)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변경계약 포함)시 하도급대금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하수급인(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함. 또한 도급계약 당사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토록 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면제 기준
 - 1건의 하도급계약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경우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 위반시 제재사항
 - 시정명령(동법 제81조제4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동법 82조 제1항 제8호)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건설업자 : 시정명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 시정명령 불이행시 : 하도급대금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3 제3호)

5.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시행령 제64조의 3, 시행규칙 제34조의 4)

- 수급인(원사업자) 또는 하수급인(수급사업자)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현장별이 아닌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지급보증서 교부가 가능한 경우
 -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기준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1개의 건설현장에서 동일한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위반시 제재사항
 - 시정명령(동법 제81조 제4호)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동법 82조 제1항제8호)

6.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4, 시행령 제64조의 4, 시행규칙 제34조의 5)

- 건설업자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위반시 제재사항(동법 시행령 89조 별표7의 서목)
 - 과태료 1차 : 100만원, 2차 : 200만원, 3차 이상 : 300만원

7. 하도급 등의 통보(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시행령 제32조)

- 하도급을 한 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날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 다시 하도급 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 하도급계약 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도 30일 이내 통보
- 위반시 제재사항(동법 제99조 제5호)
 - 과태료 1차 : 100만원, 2차 : 150만원, 3차 이상 : 150만원

8.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신고(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1항, 시행령 제105조 제1항)

-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1천만원 이상의 재산 피해발생시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발생 경위, 조치사항, 향후 조치계획 등의 사항을 2시간 이내 통보
 -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전화·팩스 및 기타 그 밖의 적절한 방법 활용 가능
- 위반시 제재사항(동법 제91조 제3항 제16호)
 - 과태료 1차 : 200만원, 2차 : 250만원, 3차 이상 : 300만원

10 |

해빙기 및 봄철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기온 상승에 따른 지반 약화로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의 붕괴, 가설구조물 변형 등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현장의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빙기 및 봄철(지붕공사 등) 안전관리 수칙'을 발표하였다. 이에 우리사회에서는 소속 현장에서 해빙기 위험요인 점검 및 지붕공사 시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요 안전수칙을 안내하였다.

■ 주요 안전수칙 내용

- 지붕 작업 시 고소작업대 사용 또는 안전발판을 설치한 후에 작업 진행
- 지붕의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할 것
-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관리감독자는 보호구 착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것
- 지붕 위 작업 장소 및 통로에는 폭 30cm 이상의 작업 발판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여 이동할 것

- 비계 및 가설 구조물의 안전상태를 수시로 점검 및 보강할 것
- 작업 전·중·후 안전교육과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철저히 할 것
- 위험 작업 발견 시 즉시 중지하고 개선조치를 이행할 것
- 태풍·강풍·폭우 등 악천후 예보 시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충분한 안전 조치를 시행할 것
- 작업자에 대한 건강상태 및 고소작업 적합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것
- 지반 약화에 따른 굴착·성토면 및 흙막이 지보공의 붕괴 위험을 상시 점검할 것

※ 해빙기 및 봄철 건설현장 안전수칙 안내자료는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1 | 2026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 사업 안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전문건설업체의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대표자 및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2026년 전문건설업 안전보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26년 상반기는 지붕 공사 관련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아카데미를 집중 운영하고 있다.

■ 주요 내용

- 1. 신청대상** : 전문건설업체 CEO(사업주, 임원) 및 실무자
- 2. 신청방법** :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edu.kosha.or.kr)
- 3. 교육과정** : 대면 오프라인 교육(공단 지역 본부별 개별 개최)

구분	CEO(지붕 및 태양광공사 사업주, 임원)	실무자
일정	[상반기] 4월9일(목), 4월14일(화), 4월23일(목) [하반기] 9 ~ 10월 중 ※ 3주 과정(총 12시간)	(연 1회) 6 ~ 7월 중 ※ 1일 과정(총 4시간)
과정	· 핵심 안전조치 및 감독절차 · 위험성평가 참관·실습·토의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및 우수사례 등	·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 위험성 평가 실습

※ 수강료 무료, 공단 지역 본부별 1개 과정당 교육정원 약 20명 내외

4. 수료혜택

- (CEO) ① 건설업체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 관련 사업주 교육과정 수료 인정
(종합건설 면허 보유시)
- ② 우수 수료시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여
- (실무자) 안전보건교육 4시간 인정

5.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시본부

(문의) 051-520-0592 [건설부서] / (접수) 051-520-0553 [교육부서]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2 |

불법 외국인력 합법화 및 비자 통합 안내

법무부에서는 건설현장의 원활한 인력 수급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체류 자격이 경과한 불법 방문취업(H-2) 인력 1,544명을 합법화 조치하였으며, 기존 동포 외국인력의 이원화된 비자(H-2, F-4)를 재외동포(F-4)로 통합하고 취업범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외국인력의 활용도를 대폭 제고하여 통합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1. 합법화 조치 및 비자 통합

- 불법외국인 합법화 : 방문취업(H-2) 중 '25. 8.18. 이전 체류자격 경과로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 중 준법의식 등을 심사하여 총 1,544명에 대해 합법 체류자격 부여('25.12.30)
- 비자 통합 : F-4(재외동포), H-2(방문취업) 일원화 및 활용도 제고

2.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신청 안내

- 신청내용 : 현 방문취업(H-2)자격자는 '통합신청서'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 가능
- 신청방법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www.hikorea.go.kr) 신청 가능
 - * 27.12.31까지 수수료 면제
- 제출서류 :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신고서)
 - * 신청서는 하이코리아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 * H-2 신규 발급 중단(기존 H-2 소지자는 체류기간까지 체류)

3. 문의처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국번없이 1345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3 |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중·소규모 건설사업주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활성화 및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도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 사업명 : 2026년도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

2. 지원내용 : 사업주별 단말기 1대 전액 지원('26년 내 공사기간)

3. 신청기간 : '26. 3.10 ~ '26.12.31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 '26.12월까지 신청한 사업주 한정 '27년까지 이월가능

4. 신청자격 : 공사에정금액에 따라 구분하여 신청

- 공사에정금액 3억원 미만 사업장 : (기존)모든 사업주
- 공사에정금액 3억~300억원 미만 사업장 : (신규)단말기 1대를 설치 완료 후 추가 단말기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하수급 포함)

*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시점 기준 금액으로, 공사에정금액이 없는 경우 계약금액 기준(하수급사의 경우 계약금액 기준)

5.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메일(card@cw.or.kr) 또는 단말기 지정업체(공지사항 내 붙임2 참고)로 제출

6.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사업주용 유의사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제출

7. 주의사항

- 임대비용은 공제회가 단말기업체로 직접 지급
- 실제 퇴직공제 성립 신고 시 '단말기 설치계획서'를 입력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발주기관 정산 불가

8.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이메일(card@cw.or.kr.)
- 건설근로자공제회(02-519-2134~9)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4 |

장애인가용부담금 손금산입 대법원 판결 및 경정청구 안내

우리 협회는 그간 회원사가 장애인가용부담금을 납부하고도 손금 불산입으로 인해 비용 처리를 받지 못한 불합리한 점에 적극 대응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대법원에서 해당 부담금의 손금 산입(비용 처리)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최종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에 손금 불산입 처리한 회원사는 경정청구 검토가 가능함을 알렸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 주요 내용**1. 대법원 판결 내용(대법원('26.3.12 선고 2024두30809))**

-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라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더라도, 법인 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제재성 공과금으로 보기 어려움
- ⇒ 이에 해당 부담금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여지가 인정되어, 기존에 손금불산입 처리한 법인은 경정청구 검토 가능

2. 회원사 유의 사항

- 과거 법인세 신고 시 장애인가용부담금 손금불산입 처리 여부 확인 및 서류 점검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청구 기한 도과 여부 확인
- 경정청구 가능 사업연도 및 예상 환급세액은 개별 법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검토 필요
- 2025년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으로 특정 사업연도부터는 다시 손금불산입으로 분류될 가능성 있으므로 검토 필요

* 본 안내는 일반적인 판결 동향 및 참고사항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에 갈음하지 아니함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5 | 한국도로공사 불공정하도급 신고 모바일 핫라인 운영 안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및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사항을 근절하고자,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모바일 핫라인(Hot-Line)'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1. 주요 운영 내용

- 신고대상 : 재정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토목공사 분야
- 신고내용 : 불법하도급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 신고방법 : QR코드(별첨 참조) 스캔 후 휴대폰으로 바로 신고
- 결과공유 : 조사 결과는 네이버 밴드(하도급 H-Line)를 통해 공시

2. 지원내용 : 회원사에서는 해당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6 |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및 협조 요청

'26. 3. 10.부터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건설 현장의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원청의 사용자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제한 등 회원사의 경영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회원사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자 주요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1. 주요 개정 내용

- (사용자 범위 확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지위에 있는 원청까지 사용자로 규정
- (노조 요건 완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 단결권 보장
- (노동쟁의 범위 확대) 경영상 결정 및 명백한 단협 위반을 쟁의 사유에 포함
- (손해배상 제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청구시 조합원별 책임비율 산정·감면 및 면책 규정 신설

2. 건설현장 예상 대응 방향

- (교섭 형태 분리) 건설노조는 원도급사에는 '현장 안전·보건관리'를, 하도급사에는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직접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을 병행 요구할 것으로 예상
- (정부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는 간담회 등을 통해 원청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하고, 제도 안내 및 해석 지침 배포를 통해 원활한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

3. 회원사 협조 요청 사항

-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을 숙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회는 금년 상반기 중 회원사 대상 노동조합법 강습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중앙회에서 주관하는 노동조합법 강습회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7 |

건설기계 공사현장 반입 전 확인 철저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발생한 건설기계 전도 사고와 관련하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현장 반입 전 건설기계 제원 확인을 당부하였다.

1. 사고 사례 및 배경

- 사고 개요 : '26. 3. 4. 대구 건설현장에서 향타 및 향발기가 전도되어 인명피해 및 교통체증 발생
- 발생 원인 : 건설기계등록증상 제원(리더 길이 등)을 무단으로 연장하여 구조적 안전도가 저하된 불법 개조 기계를 현장에서 확인 없이 반입·사용
- 조치 현황 : 국토교통부는 불법 개조 등 부정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엄중 조치할 계획

2. 건설기계 현장 반입 전 확인 사항

- 건설기계 현장 반입 시 건설기계등록증상의 제원(길이, 높이 등) 및 작업장치가 실제 기계와 일치하는지 철저히 확인
- 현장 관리자는 기계 반입 전 등록증 제원과 현물 대조 실시
 - 불법 개조(리더 무단 연장 등) 여부 집중 점검
 - 제원 미일치 및 안전도 저하 기계는 현장 반입 즉시 차단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8 |

고용노동부 「해체공사 안전작업 가이드」배포 안내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 중 붕괴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해체공사의 안전한 작업 수행 및 재해 예방을 위해 「해체공사 안전작업 가이드」를 제작·배포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부정당업자 제재의 효과 및 범위

질의

부정당 업체인 A회사의 대표가 새롭게 설립한 B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경우, B회사도 부정당업자 제재 효과가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해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련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당해 입찰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2025.06.02.



행정처분중 양도공고의 가능여부

질의

1. 건설업행정처분 중 양도공고가 유효한지 여부
2. 동종 건설업자간 합병시 폐업 건설업의 선택 가능 여부

회신

1.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는 양도할 수 없게 하고 있는 바, 이는 영업정지의 본래 취지에 맞는 것으로 영업정지기간 중에는 법위반 상태에 있게 되므로 건설업의 영위는 물론, 그밖에 등록을 근거로 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의 이전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건설업의 영업정지기간 중에는 건설업의 양도공고도 제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동종의 건설업자간 합병의 경우, 건설업 양도가 아닌 기재사항변경 대상이 되며, 한 법인(자연인)이 동종의 건설업을 다수 등록할 수 없으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중복된 건설업 등록을 폐업(반납)하고자 할 경우 폐업대상 건설업은 소멸법인의 건설업을 원칙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2019.05.24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080

사건명: 장애인 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 대상 해당 여부

판시사항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과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정한 손금불산입 대상(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령상 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되는 공과금에는 해당하나,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제재적 목적의 공과금'으로는 볼 수 없다.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조세법률주의의 엄격 해석

-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의 범위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2. 부담금의 성격(유도적·조정적 성격)

- 이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사업주 간에 나누기 위한 것이며, 처벌보다는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사업경비'적 속성이 강하다.

3. 책임 요건의 부재

- 벌금이나 과태료와 달리 고의·과실 등 주관적 책임 요건 없이 부과되며, 고용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4. 입법 연혁

- 과거 법령에서 손금 산입을 명시했던 취지가 법령 개정 과정에서 부정되었다고 볼 만한 정책적 변화나 근거가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타당함을 확정함)

시사점

1. 기업의 세무 부담 완화

• 그 동안 실무상 논란이 있었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세무 처리에 대해 대법원이 '손금(비용) 인정'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

2. 경정청구의 근거 마련

• 기존에 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했던 기업들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과거 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게 됨

3. 공과금의 외연 확장

• 단순히 '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돈이라고 해서 모두 제재금인 것은 아니며, 그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경제적 조정 vs 징벌)에 따라 세무상 취급이 달라짐을 확인

의의

본 판결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법적 성격을 '징벌적 제재'가 아닌 '경제적 조정 수단'으로 확립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음. 이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이라는 공동의 부담을 비용 형태로 분담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며 조세법 해석에 있어 확장 해석을 경계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엄격 해석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임.

건설관련 법 상담

불법하도급거래 해당 여부와 자진신고

A사는 B사로부터 병원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던 중, 면허가 없는 C사와 인력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노무비 제공 계약’이라 명시했고, A사가 자재를 제공하며 인부 노임도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C사가 돌연 “이 계약은 실질적으로 불법 재하도급”이라며 과도한 대금을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 경우 불법 재하도급에 해당하는지, 또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이 감경되는지 궁금하다.

전문가 답변 : 우선 해당 계약이 불법 재하도급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질적인 운영 형태가 중요하다. 비록 자재 제공과 노임 직불 조건이 있더라도, C사에게 지급하는 약정금이 투입된 ‘인력의 수’가 아니라 ‘작업의 완공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되거나, 시공 결과에 대한 하자 보수 책임이 C사에게 있다면 이는 단순 노무 제공을 넘어선 도급 계약으로 볼 여지가 크다.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재하도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불법 재하도급이 인정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도급 제한 위반을 이유로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무면허 재하도급 시 6개월의 영업정지나 도급금액 구간별로 6~24%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최근에는 영업정지 처분 빈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문제는 자진신고 시 감경 여부다. 형법은 자수 시 형을 감경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자진 신고에 대한 필요적 감경 규정이 없다. 다만 시행령에서 △법령해석 착오로 위반 후 시정 완료 △최근 3년 내 제재 처분 없음 △건설업 교육 이수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영업정지나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다.

이와 별개로 C사의 과도한 금전 요구에는 ‘공갈죄’로 대응하는 것이 유효하다. 정당한 신고라 하더라도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한다.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https://www.koscaj.com>)

- 황보 윤 법무법인 공정 변호사

이수용 세무사의 '건설기업 세무회계'

<건설업 기업진단 유가증권의 평가 (2)>

지난 호의 유가증권의 정의와 분류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에 대해 소개합니다.

4. 유가증권의 평가

- ①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합니다.
- ② 공제조합출자금 및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유가증권은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 ③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유가증권이 진단기준일 현재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때에는 겸업자산으로 보며, 이 경우 겸업자산으로 보는 유가증권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 등은 겸업부채로 처리합니다.
- ④ 유가증권이 진단기준일 이후 매도돼 예입된 매매대금이 입금 후 60일 이내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 또는 유지된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5. 실재성의 확인

유가증권은 건설업계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며 가공의 유가증권을 통해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으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핵심은 유가증권의 실재성 판단입니다.

- ①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유가증권의 실재성이 확인됐더라도 제출한 잔고증명서상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일시 예금의 확인 방법과 마찬가지로 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서를 검토해 60일의 기간 동안 매도돼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됐는지 확인합니다.
- ② 유가증권 명세서에 특정 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한 SPC 지분증권이 있다면, SPC 출자확인서, 주주 명부와 유가증권 취득과 관련한 출금증빙을 확인해 실재성을 확인합니다. ③ 공제조합 출자금의 경우 공제조합 출자좌수증명원을 확인해 실재성을 확인하며, 용자금잔액증명서를 반드시 동시 제출해 대응되는 부채의 존재를 입증합니다.



이수용 세무사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부산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

(2026. 03. 31. 기준)

지역	업체수	등록수
중구	41	67
동구	72	121
서구	30	41
사하구	103	150
영도구	21	35
동래구	232	318
남구	128	172
금정구	300	437

지역	업체수	등록수
연제구	170	255
해운대구	301	420
수영구	137	215
부산진구	187	262
북구	112	156
사상구	160	215
강서구	329	466
기장군	247	371
합계	2,570	3,701

부산 진출·입 전문건설업체 현황

(2026. 01. 01. ~ 2026. 03. 31.)

전출업체 현황

- (주)명문 (대표자:양빈, 경남)
- 에코그린랜드(주) (대표자:윤종면, 울산)
- (주)이룸조경 (대표자:김정자, 울산)
- 케이에스티이엔씨(주) (대표자:강수창, 서울)

전입업체 현황

- (주)금성랜드 (대표자:강경숙, 경남)
- (주)두신건설 (대표자:신정훈, 경남)
- (주)백강토건 (대표자:조민규, 충북)
- (주)백호시스템 (대표자:류기섭, 대구)
- (주)서연이앤에이 (대표자:김진홍, 대구)
- (주)소솔건설 (대표자:이여준, 충남)

전입업체 현황

- 신승건설(주) (대표자:최태보, 경남)
- (주)신원테크 (대표자:조희승, 서울)
- 영민건설(주) (대표자:이민정, 경남)
- (주)원석토건 (대표자:김준형, 경남)
- (주)제이에스플랜트 (대표자:홍명재, 경북)
- (주)지오하이텍 (대표자:김명신, 경남)
- (주)청류건설 (대표자:정현아, 경남)
- (주)케이알에스건설 (대표자:박지선, 경북)
- (주)한경테크 (대표자:한용석, 경남)
- 해우개발(주) (대표자:한외훈, 경북)
- (주)현대조경 (대표자:윤금재, 경남)

부산 전문건설업체 상호변경 현황

(2026. 01. 01. ~ 2026. 03. 31.)

변경전	변경후
남경설비(주)	(주)남경
(주)해신석건	(주)대신건업
(주)수민건설	대양건설(주)
한남건설(주)	덕신건설(주)
(주)서원아이앤디	(주)디아이서원종합건설

변경전	변경후
(주)디자인제이	(주)먹모드건설
청목조경(주)	(주)소솔건설
(주)화성디앤씨	(주)이도조경
(주)서현건설	(주)제이에스종합건설

부산 전문건설업체 대표자변경 현황

(2026. 01. 01. ~ 2026. 03. 31.)

상호명	변경전	변경후
고연건설(주)	이춘입	이춘입,송병우
(주)골든금속창호	김성현	김경식
(주)광평산업개발	이한성	이한성,이진희
(주)구룡산전	정귀자	하지훈
금산건설(주)	강상혁	김영순
(주)다운인테리어	강홍기	강예나
(주)다옴아이디씨	서승현,백종건	서승현
(주)다함조경나무병원	박상기	박은별
(주)대성건설중기	이상식	이상식,권은미
(주)대주이앤씨	이상현	강명주
(주)더기린	조희승,안정수	조희승
덕신건설(주)	구정본	김주환
(주)도원건설	윤서연	신창훈
(주)동성	석상우	최병인
(주)두원산전	김영도	홍대기
(주)디자인포유	남인찬	이혜원
(주)레몬하우스	김선희 외 22명	김선희 외 23명
(주)마음디자인컴퍼니	홍미순	이미영
미포산업개발(주)	김재욱	이태우
(주)부광엘리베이터	탁충현	탁민하
(주)부성건설	윤성부	윤수연
(주)부창건설팅	김수금,조형철	조형철
(주)비드	이승복	이경애
(주)삼성환경	이형근	이형근,김은미
(주)삼아에코빌	박민준,박종갑	박민준
(주)소솔건설	원유준	이여준
(주)신우토건	조희학	김기선
(주)양지건설	원창선	노정옥
(주)에코그린	김나은,김한기	김나은

상호명	변경전	변경후
엔씨건설(주)	정광민,허경수	정민규,허경수
(주)엠엘산업	이봉진,민재홍	민재홍
(주)엠엘산업	민재홍	민재홍,이봉진
(주)엠와이조경	김지연	장지영
(주)에일조경	정진광	정진광,정지은
(주)용성건설	김용철	김영호
(주)용성아이피	박종쇠,박준형	박준형
(주)우리하이샤시	정선광	정유석
우송조경(주)	김종헌	김서우
(주)유티알	정인영	김준혁
인터지스(주)	박동호	최우일
(주)일진토건	장현태	황영자
(주)자람디자인	임연지	손옥화
(주)재연조경	차승철	김준영
정한건설(주)	성해민	정승희
(주)제이에스종합건설	박지수	김진성
(주)제현건설	안영순	김원배
조광건설(주)	한창훈	박영빈
주안건업(주)	서관섭	이성호
(주)중앙건설산업	김수라	김정숙
초석에이치디(주)	최균영,최슬기	최균영,최슬기, 문상욱
케이디건설환경(주)	문도용,신일근	문도용,신진욱
태영환경(주)	김유진	정지후
(주)한경테크	김창동	한용석
(주)한국비전아이디	박성철,하정아	박성철
해든조경(주)	김정숙	이정인
(주)해원조경	유해원	유가영
(주)후성건설	박호출	김수연

부산시회 신규회원 현황

(2026. 01. 01. ~ 2026. 03. 31.)

 <p>(주)강서이앤씨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 국제5로라길 18 (미음동) T : 051-715-1067 보유업종 : 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p> <p>강서백</p>	 <p>(주)그린노마드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 국제6로 107, 비동 118호 (명지동) T : 070-8666-4739 보유업종 :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p> <p>박정혁</p>	 <p>(주)금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상로 112, 112동 202호 (덕포동) T : 051-715-6511 보유업종 : 실내건축공사업</p> <p>박성호</p>
 <p>꿈의정원(주)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개좌로 789, 1층 1호 (철마면) T : 061-763-7755 보유업종 :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p> <p>이대호</p>	 <p>(주)남경이엔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주로 6-7 (주례동, 남경빌딩) T : 051-317-3119 보유업종 : 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p> <p>김경숙</p>	 <p>(주)남영건설산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 1로 50, 203-102 (대저2동) T : 051-989-8886 보유업종 : 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p> <p>김은영</p>
 <p>(주)다함께컴퍼니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75, 비101호 (광안동, 큐비메디컬센터) T : 051-759-0030 보유업종 :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p> <p>윤재혁</p>	 <p>(주)단호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 209, 201호 (온천동, 동서산장) T : 051-715-3002 보유업종 : 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p> <p>노영훈</p>	 <p>(주)동남더블유엔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141, 상가동 107-1호 (우동,대우마리나2차아파트) T : 055-375-9988 보유업종 : 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p> <p>이두홍</p>
 <p>(주)동온디엔씨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43번길 34, 2층 201호 (연산동, 시청역 SK VIEW) T : 051-862-7778 보유업종 :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p> <p>조명환</p>	 <p>(주)디에이치기술단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54번길 6, 5층 (연산동) T : 051-867-9548 보유업종 : 실내건축공사업</p> <p>정병훈</p>	 <p>(주)디자인파란 부산광역시 해운대 APEC로 55, 2층 263 B호 (우동, 벅스코) T : 051-740-7981 보유업종 : 실내건축공사업</p> <p>김민주</p>

 <p>디자인하우스</p> <p>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순환로35번길 59 (당감동)</p> <p>김미정</p> <p>T : - 보유업종 : 실내건축공사업</p>	 <p>(주)리앤씨건설</p> <p>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67번길 20, 상가동 302호 (대연동, 대연동원아파트)</p> <p>이제선</p> <p>T : 051-636-4799 보유업종 : 실내건축공사업</p>	 <p>(주)비엠조경</p> <p>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운로 45, 비1235호 (좌동, 해운대 베르나움)</p> <p>박서연</p> <p>T : 070-7378-5981 보유업종 : 실내건축공사업</p>
 <p>(주)세청건설</p> <p>부산광역시 강서구 맥도길 335, 202호 (대저2동)</p> <p>류선영</p> <p>T : 051-972-1217 보유업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p>	 <p>(주)씨앤제이건설</p> <p>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1, 535호 (우동, 선프라자)</p> <p>최성현</p> <p>T : 051-747-3823 보유업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p>	 <p>(주)아세아건설</p> <p>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344번길 13, 한신상가 비1층 4,5호 (한신아파트)</p> <p>이준희</p> <p>T : 051-611-7008 보유업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p>
 <p>(주)에스엠터치</p> <p>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덕로 10 (삼락동)</p> <p>전창수</p> <p>T : 051-305-9634 보유업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p>	 <p>(주)영광종합건설</p> <p>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44번길 62-6 (당감동)</p> <p>박종수</p> <p>T : 051-892-6496 보유업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p>	 <p>(주)와이앤제이이앤씨</p> <p>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238번길 31, 502호 (수안동)</p> <p>강민규</p> <p>T : 051-926-8832 보유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p>
 <p>우송조경(주)</p> <p>부산광역시 금정구 팔송로 45번길 49 (남산동, 태현빌)</p> <p>김서우</p> <p>T : 051-710-2070 보유업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p>	 <p>(주)웨이브인테리어</p> <p>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안로 13번길 97, 1층 (연산동)</p> <p>정동기</p> <p>T : 051-271-5888 보유업종 : 실내건축공사업</p>	 <p>윤산조경(주)</p> <p>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6로 5-20, A147호 (미래안전통상가)</p> <p>김소연</p> <p>T : 051-711-6929 보유업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p>

 <p>(주)이안디자인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 736, 상가동 605호 (구포동, 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 T : 051-337-6999 보유업종 : 실내건축공사업</p> <p>홍미영</p>	 <p>(주)정감디자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수촌로 146-4, 101동 1001호 (반여동, 센텀우성스마트시티뷰) T : 051-759-7722 보유업종 : 실내건축공사업</p> <p>정재원</p>	 <p>(주)정담구도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35, 상가에이동 205호 (대연동, 대연롯데캐슬레전드) T : 051-291-0026 보유업종 : 실내건축공사업</p> <p>변재문</p>
 <p>정인조경건설(주)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755, 1층 (수정동) T : 051-505-3688 보유업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p> <p>설정은</p>	 <p>(주)제이건설산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44번길 31, 1층 (당감동) T : 051-897-6551 보유업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p> <p>안규영</p>	 <p>(주)제임스이엔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호계로 35, 2층(죽림동) T : 055-331-3105 보유업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p> <p>정재원</p>
 <p>조아산업개발 부산광역시 남구 양지골로 95, 1층 (감만동) T : 051-623-4394 보유업종 : 실내건축공사업</p> <p>장성민</p>	 <p>조은공간 부산광역시 수영구 무학로 21번길 72, 1층 (광안동) T : 051-752-6561 보유업종 : 실내건축공사업</p> <p>강미희</p>	 <p>(주)지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30, 제포디움동 제3동 2063호 (중동, 엘시티) T : 051-741-6600 보유업종 : 실내건축공사업</p> <p>이준호</p>
 <p>(주)지해디자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남로 102번길 22, 1층 (온천동) T : 051-506-1550 보유업종 : 실내건축공사업</p> <p>안지혜</p>	 <p>(주)카파디자인그룹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174, 2층 (거제동, 카파빌딩) T : 051-864-2005 보유업종 : 실내건축공사업</p> <p>정명옥</p>	 <p>(주)케이피엠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104번길 29, 상가111동 201호(김만동일스위트아파트) T : 051-635-7055 보유업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p> <p>이국형</p>

 <p>(주)태건종합건설</p> <p>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81번길 79, 7층 (온천동)</p> <p>허열</p> <p>T : 051-863-2246 보유업종 : 구조물해체· 비계공사</p>	 <p>(주)태주기업</p> <p>부산광역시 강서구 호계로 23, 205호 (죽림동)</p> <p>노현주</p> <p>T : 051-971-2184 보유업종 : 도장·습식· 방수·석공사업</p>	 <p>(주)티에스건설</p> <p>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 2로28번길 34, 603-1호 (명지동,에코팰리스)</p> <p>신희숙</p> <p>T : 051-202-3381 보유업종 : 지반조성· 포장공사,구조물해체· 비계공사</p>
 <p>평산이앤씨(주)</p> <p>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338번가길 19, 상가동 201호 (우동, 삼진그린아파트)</p> <p>장정복</p> <p>T : 051-717-0134 보유업종 : 지반조성· 포장공사</p>	 <p>KOSCA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p>	 <p>KOSCA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p>

KOSCA 중앙회 업무단신

▷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3월 13일 공신력 있는 연합뉴스TV(대표이사 안수훈)와 「전문건설업 정책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협회 창립 후 언론사와의 첫 MOU이며, 양 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건설업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 성과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전문건설업 관련 주요 정책 추진 사항 및 제도 개선 성과 홍보 △협회 주관 세미나, 학술대회, 기념행사 등 주요 행사 지원 △건설산업 및 전문건설업 관련 주요 이슈, 정책 자료, 통계 등 정보 공유 △건설산업의 안전, 상생,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노력 △상호 협의에 따른 공동 기획 및 기타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 윤학수 중앙회장이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대국회 정책 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1월 26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 발생한 부작용을 바로잡고 건설 업역 간 불공정 경쟁체제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1월 28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 의원을 만나 건설업역 간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를 위해 △전문 공사 보호구간 확대 및 일몰제 폐지 △의제부대공사 범위 확대 등을 요청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단신

▷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K-FINCO)이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법인사업자 조합원(2025년 12월말 결산 법인 기준)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정기 신용평가」 접수를 받는다.

K-FINCO는 매년 조합원의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 K-FINCO와의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용등급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보증한도 및 수수료율, 융자 이율 등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신용평가 유효기간(지난해 12월 말 결산 기준으로 외감 법인 조합원은 올해 6월 말까지, 그 외 조합원은 7월 말까지)이 만료되면 보증서 발급 등 K-FINCO와의 업무거래가 정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정기 신용평가 신청 및 필수 서류 제출 등은 조합원의 편의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인터넷 업무서비스(ebiz.kfinco.co.kr)에서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회 2026년 2/4분기 주요일정 안내

일자	주요일정	비고
2026. 5. 15(금)	상반기 건설분야 전문가 무료법률상담	
2026. 6. 1(월)	2025년도 건설(전문)공사 2차 재무제표 접수 마감(개인업체)	성실신고업체는 6. 24(수) 마감
2026. 6월 중	부산전문건설인 단합 산행	

※ 상기 일정은 협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건설업 교육 일정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교육센터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최고의 건설업 윤리 및 실무종합 교육기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근거하여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재(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한 경우 제외) 및 영업정지 기간 중인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업 신규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교육이수가 의무적이며, 영업정지기간 중인 건설업체의 경우는 동 교육 이수 시 영업정지기간이 최대 15일 감경될 수 있기에 교육이수가 권장된다.

2026년도 건설업 교육 일정 안내

01 교육대상

- 의무교육대상 : 신규건설 등록업체
 - 6개월 이내 등기임원(대표자 포함) 중 1인 교육 이수
 - 벌칙: 6개월 이내 미이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및 제99조
- 임의교육대상 : 영업정지 처분업체
 - 영업정지 기간 내 교육 이수
 - 감경기준 : 대표자 15일, 등기임원 1인당 5일 감경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02 교육내용 및 비용

- 내용 : 건설산업관련법령(건산법·하도급법·계약법), 건설품질·환경·안전관리, 윤리경영
- 시간 : 8시간 (09:00~18:00)
- 교육비용 : 집합교육 150,000원 / 이러닝교육 135,000원

03 교육신청 및 결제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및 교육비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 건설교육센터 <http://edu.kosca.or.kr>
(팩스 02-3284-1066)
 - 입금계좌 : 기업은행 525-001144-04053
(예금주 (사)대한전문건설협회)
- 문의 : 건설교육센터 ☎ 02-3284-1076, 1080

04 2026년 온라인(이러닝)교육 일정 (4~6월)

교육차수	신청 마감일	학습가능 기간		비고
		부터	까지	
제13기				
제14기				
제15기	4.20	4.23	4.29	
제16기	4.27	4.30	5.6	
제17기				
제18기	5.11	5.14	5.20	
제19기	5.18	5.21	5.27	
제20기				
제21기	6.1	6.4	6.10	
제22기				
제23기				
제24기	6.22	6.25	7.1	
제25기	6.29	7.2	7.15	

2025-교육혁신실-2159

재해사례 [데크 플레이트]

철골 데크 플레이트 용접 작업 중 떨어짐

⊙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골 데크 플레이트 용접 작업을 위해 데크 플레이트 고정용 노루발을 잡고 있던 작업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약 5.7m 아래 지상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짐



재해발생 원인

▶ 안전대 부착설비를 마련하여 걸이 후 작업 또는 하부에 떨어짐 방지를 위한 안전방망 설치가 되어 있지않은 장소에서 작업 실시

※ 해당 용접 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 : 용접작업자(1명), 플레이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노루발을 사용하여 힘을 주어 누르고 있는 보조 작업자(1명)



재해발생 현장

재해예방 대책

▶ 철골 데크 플레이트 설치작업 시 떨어짐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 철골보·철골기둥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마련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 걸이 후 작업토록 하거나, 하부에 안전방망(추락방지망)을 설치



하부에는 안전방망을 상부에는 안전대 걸이 시설과 안전대 착용!

참고법령 및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KOSHA Guide D-C-3-2025(철골공사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Safety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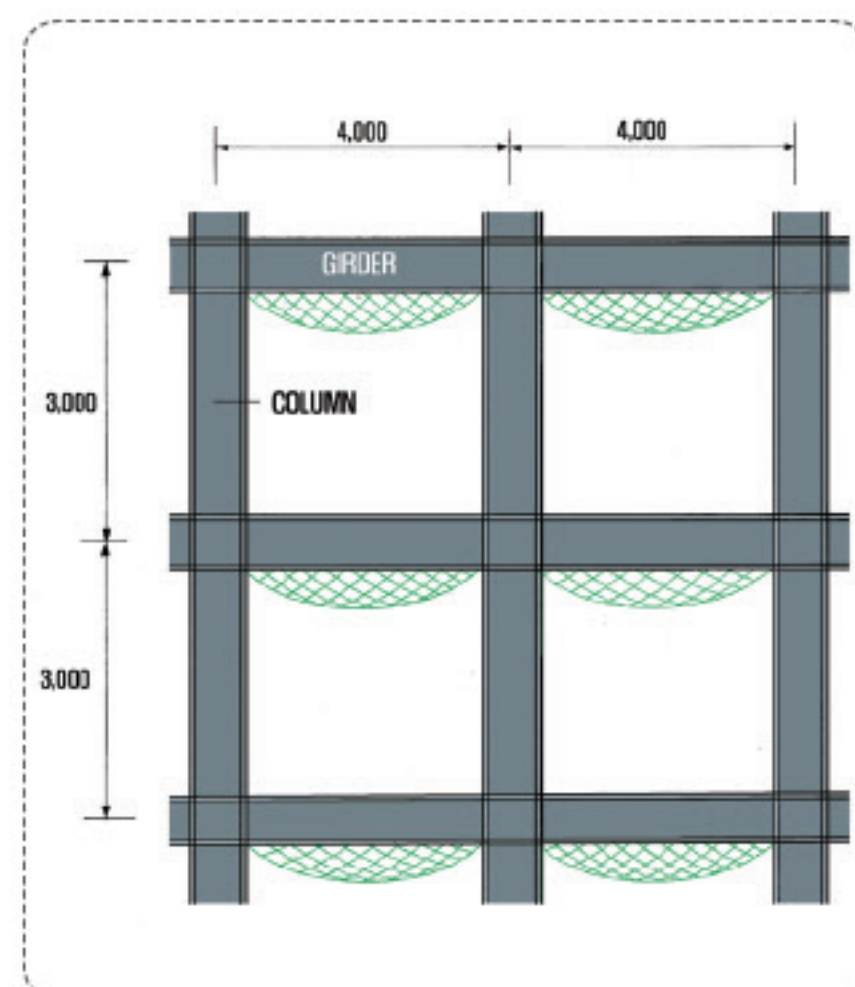
데크 플레이트 설치 작업 안전

떨어짐 재해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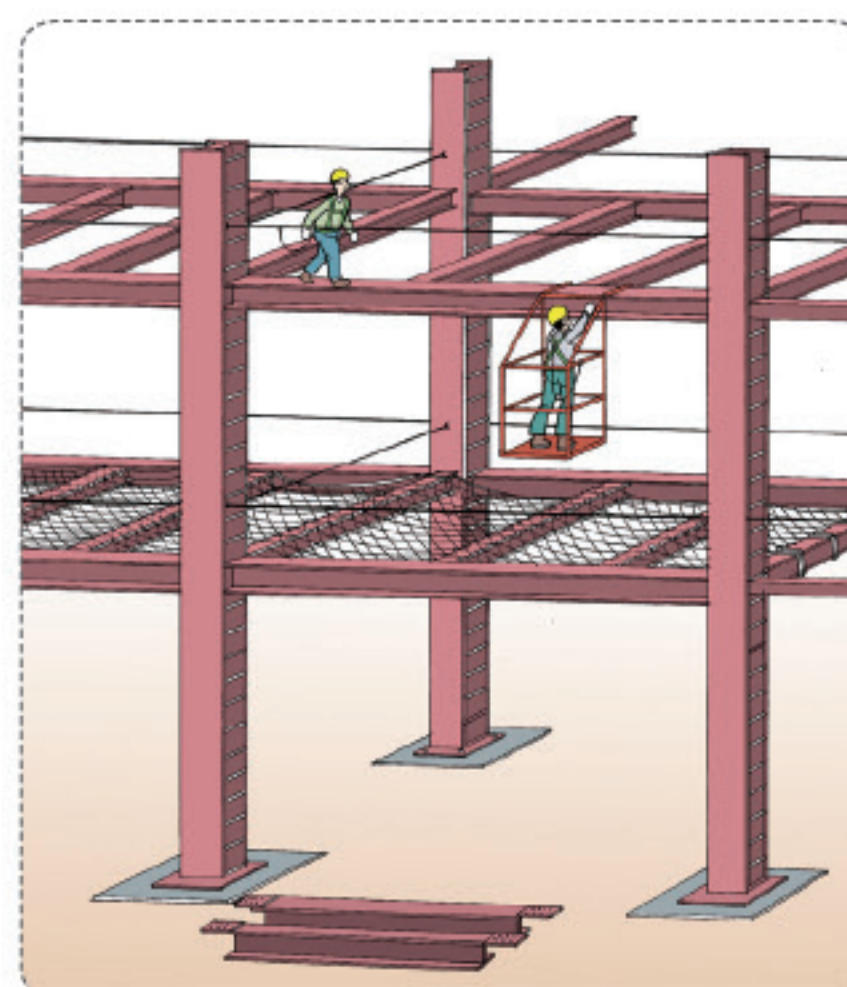
- ▶ 내가 편안한 방식으로만 행동한다.(개인 편리주의)
- ▶ 「요것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행동한다.
- ▶ 「전에도 이렇게 해 왔는데」 하는 생각으로 행동한다.(습관성)
- ▶ 「바쁘다 바빠」 를 외치며 성급하게 행동한다.
- ▶ 무심코 행동한다.(무신경)
- ▶ 떨어짐 방지 시설을 소홀히 한다.

데크 플레이트 설치 시 안전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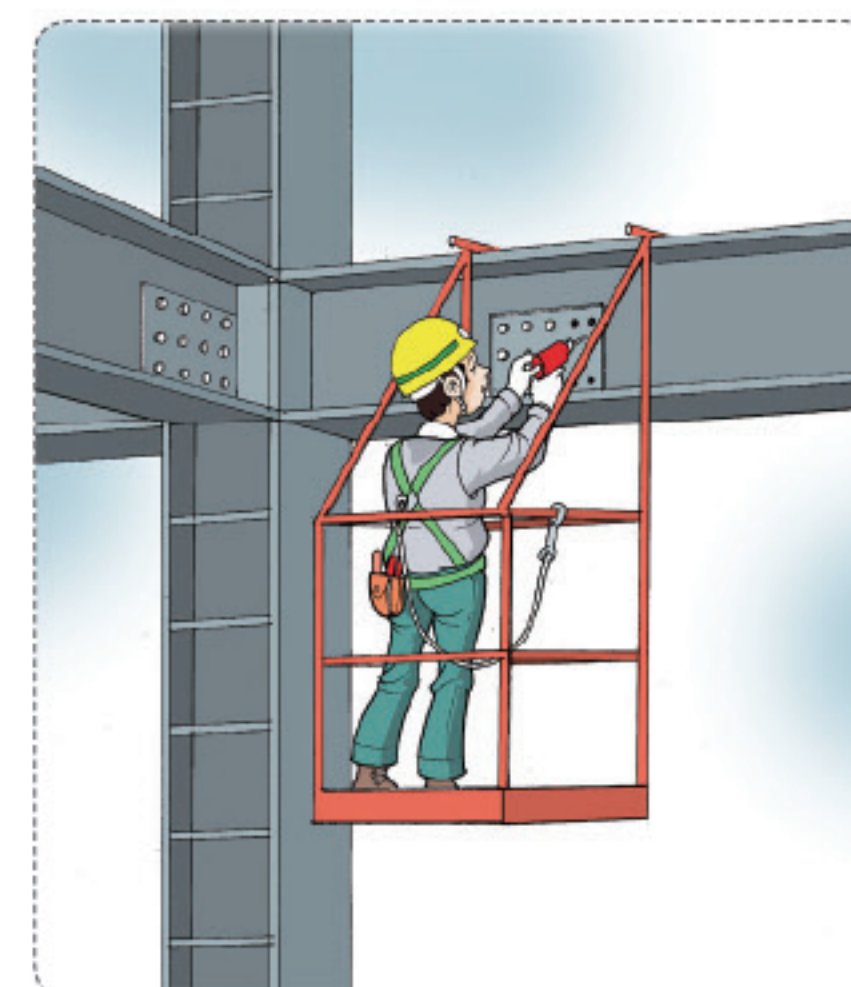
- ▶ 부재 인양 중에 데크 플레이트가 낙하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체결하고, 인양물 하부에 근로자 등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 ▶ 데크 플레이트 운반 및 깔기 작업 시에는 작업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운반통로를 설치하며,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한다.
- ▶ 데크 플레이트 중심부에 철근다발, 콘크리트 등 과적재를 금지하여야 한다.
- ▶ 데크 플레이트 설치 시에는 가능한 개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1m 간격 또는 한 장당 2개소 이상 점용접을 즉시 실시한다.
- ▶ 데크 플레이트의 슬래브 단부 및 바닥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조기에 설치하며, 덮개 설치가 어려운 대형 바닥 개구부에 안전난간 및 안전방망을 설치한다.
- ▶ 구멍줄을 설치할 경우 한 가닥의 구멍줄을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구멍줄은 마닐라 로프 직경 16mm 이상을 기준으로 설치하고, 작업방법을 충분히 검토한다.
- ▶ 용접·용단 작업장 주변에 가연물, 인화성 물체를 제거, 차단하여 화재를 예방한다.
- ▶ 철골공사 현장에서 전기용접기, 전기기기(전기드릴 등), 배·분전함, 고압선로, 임시배선(절연전선), 투광기 등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감전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감전재해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수시로 안전점검을 한다.



건축물에 설치한 방망의 일반적인 예



철골작업 시 안전시설 설치 예



철골작업 달대비계 사용 예



부산의 숨은 명소

구포국수체험관



완성되는지, 그 과정을 몸으로 이해하게 된다.

체험관 곳곳에는 '밀'이라는 재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공간이 펼쳐진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길 수 있는 체험존, 그리고 옥상에 마련된 작은 밀밭은 이 음식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조용히 보여준다. 먹는 것을 넘어 '만들고 느끼는 경험'으로 확장되는 지점이다.

마지막으로 맛보는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은 특별하다. 화려하지도, 자극적이지도 않지만 담백하게 입안을 채우는 그 맛에는 오랜 시간 축적된 방식과 정성이 담겨 있다. 그래서인지 이곳에서의 식사는 단순한 시식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한 그릇에 담긴 시간, 구포국수의 기억

부산을 떠올리면 흔히 바다와 야경을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이 도시에는 오래도록 한 자리를 지켜온 '맛의 기억'도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구포국수다. 그리고 그 시간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공간이 구포국수체험관이다.

구포국수의 역사는 단순한 먹거리의 범주를 넘어선다. 한국전쟁 이후, 값싸고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지던 음식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 국수는 부산 서민들의 삶과 함께 흘러왔다. 체험관에 들어서면 순간, 관람객은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마주하게 된다.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은 직접 체험하는 과정에 있다. 밀가루 반죽이 손끝에서 점점 형태를 갖추고, 길게 늘어진 면이 한 가닥의 국수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생각보다 느리고 섬세하다. 우리가 평소 아무렇지 않게 먹던 한 그릇이 얼마나 많은 손길을 거쳐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입구

루브르 피라미드

프랑스 파리의 중심, 세계적인 미술관인 루브르 박물관을 찾다 보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구조물이 있다. 바로 유리와 금속으로 이루어진 투명한 피라미드다. 이 독특한 건축물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방대한 루브르를 연결하는 '주 출입구'이자 현대 건축의 상징적인 작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루브르 피라미드는 1989년, 세계적인 건축가 이오 밍 페이의 설계로 완성되었다. 고전적인 궁전 건축 양식으로 이루어진 루브르 한가운데에 현대적인 유리 구조물을 세운다는 시도는 당시 큰 화제를 모았고, 완공 초기에는 논쟁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피라미드는 루브르를 대표하는 상징이자, 파리를 찾는 이들이 꼭 들르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 건축물의 가장 큰 특징은 '투명성'이다. 유리로 이루어진 외관은 주변 건축물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낮에는

햇빛을 반사하며 가볍고 밝은 인상을 주고, 밤에는 내부 조명이 켜지며 또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변화는 방문객에게 색다른 시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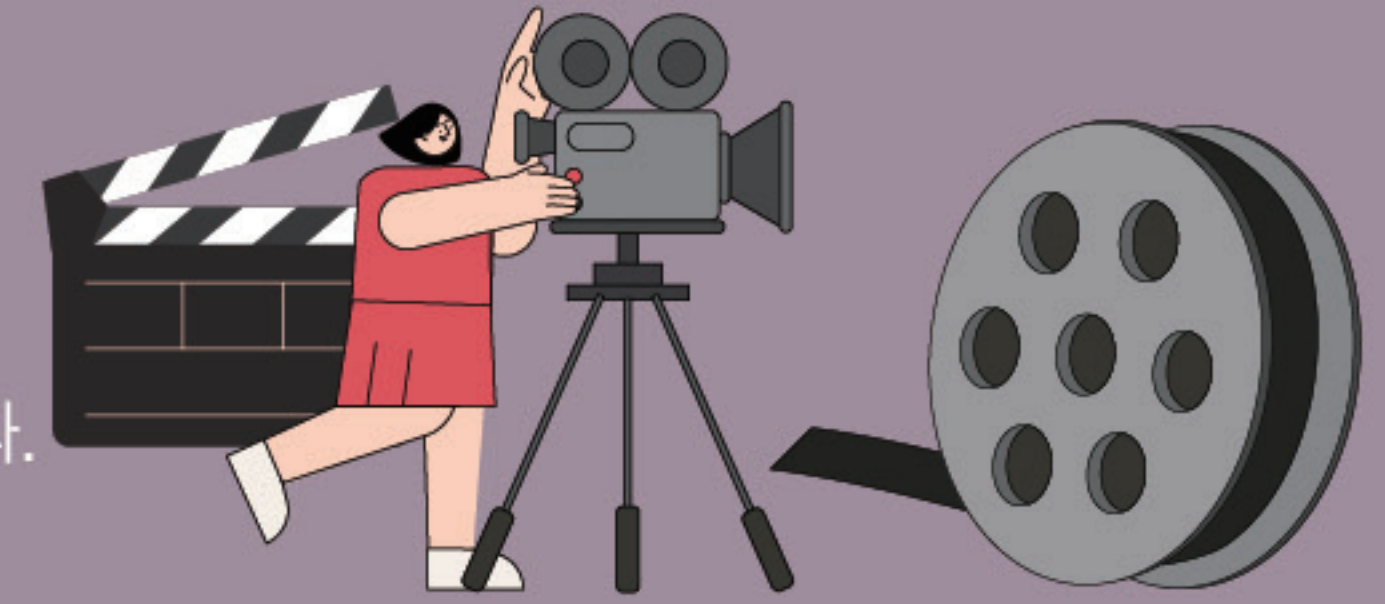
또한 루브르 피라미드는 단순한 외형 이상의 기능을 한다. 피라미드 아래에는 넓은 지하 공간이 연결되어 있어, 관람객들은 이곳을 통해 효율적으로 전시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 즉,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루브르 피라미드는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인 건축 사례다. 고전 건축의 무게감 속에서 현대적인 디자인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루브르를 더욱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든다. 파리를 방문한다면, 이 상징적인 피라미드 앞에서 잠시 멈춰 서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소통하는 문화공간

Healing Movie

잔잔한 여운과 따뜻한 감동을 남기는 영화는 메말랐던 감성을 풍부하게 만들며 생각을 환기시킨다. 잊고 있던 마음의 여유를 찾아줄 흥미롭고 감동적인 영화를 소개한다.



프로젝트 헤일메리

개봉 2026.03.18 감독 필로드, 크리스 밀러

출연 라이언 고슬링, 산드라 휠러

우주 한가운데,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선 안에서 한 남자가 깨어난다. 그는 자신의 이름도, 이곳에 오게 된 이유도 기억하지 못한 채 오직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능만으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점차 되살아나는 기억 속에서, 자신이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운명을 짊어진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지구는 태양의 에너지가 급격히 감소하는 미지의 현상으로 인해 멸망 위기에 놓여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 극비 프로젝트 '헤일메리'를 추진하고, 주인공은 그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주로 향하게 된다. 광활한 우주 속에서 그는 제한된 자원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들을 과학적 사고로 풀어나가며, 점점 임무의 핵심에 다가간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존재와의 만남은 이야기의 흐름을 크게 바꾼다. 언어도, 생김새도 전혀 다른 존재와의 교류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협력'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인간 중심적 사고를 확장 시킨다.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단순한 우주 생존극을 넘어, 과학과 유머, 그리고 인간성과 연대의 가치를 함께 담아낸 작품이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한 인간의 여정은 관객에게 깊은 몰입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한다.



왕과 사는 남자

개봉 2026.02.04 감독 장항준

출연 유해진, 박지훈, 유지태, 전미도, 김민, 이준혁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조선 제6대 국왕 단종과 호장 엄흥도의 이야기를 각색하여 다룬 사극 영화이다. 이 작품은 계유정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만, 단순한 권력 다툼을 그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과 감정에 집중한다.

특히 어린 왕 단종과 엄흥도의 관계는 이 영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권력에서 밀려나 유배된 단종은 더 이상 왕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마주하게 되고, 현실적인 판단을 우선시하는 엄흥도는 그런 단종을 받아들이며 점차 변화한다.

이 과정에서 영화는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난 인물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이다. 이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본성과 관계의 의미를 되짚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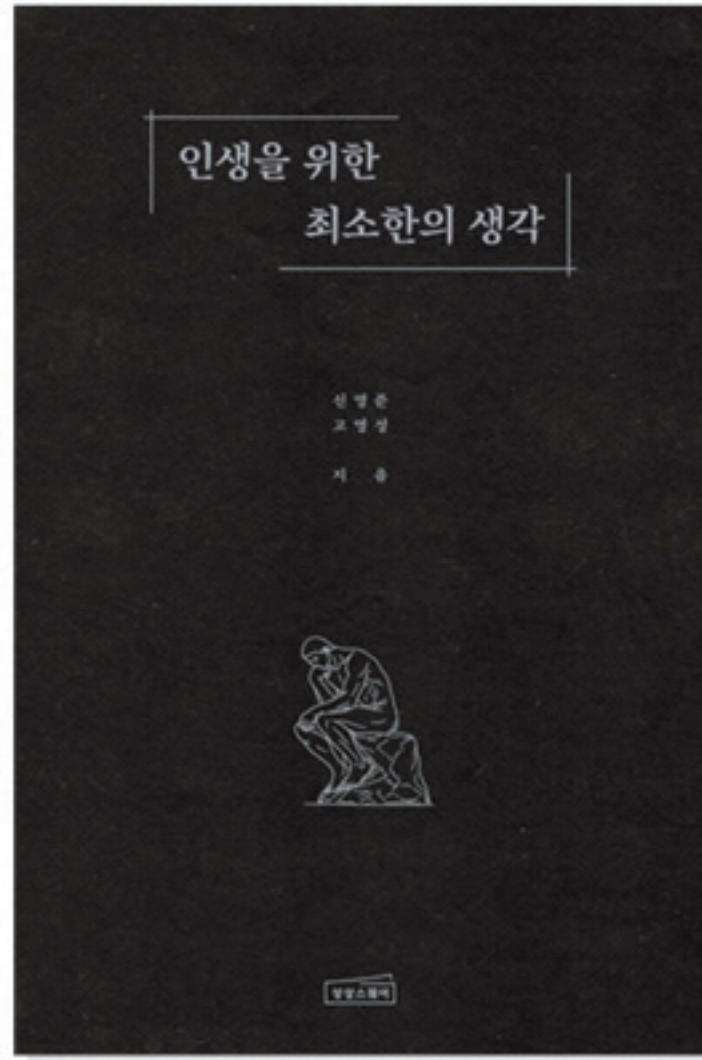
또한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도 유머와 따뜻함을 함께 담아내며 작품을 무겁기만 한 역사극이 아니라, 인간적인 공감을 이끌어내는 이야기로 완성시킨다.

<왕과 사는 남자>는 역사라는 큰 틀 속에서 인간의 감정과 변화를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다운 선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작품이다.

소통하는 문화공간

Healing Book

하루하루를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읽을 만한 분야별 힐링 북을 소개한다.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신영준,고영성 저 / 출판사 상상스퀘어 | 발매일 : 2025년 02월

빠르게 소비되는 정보의 시대, 우리는 점점 '생각하지 않는 삶'에 익숙해지고 있다. 스마트폰 속 짧은 영상과 즉각적인 자극은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그만큼 깊이 있는 사유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간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를 '생각이 사라진 멸종의 시대'로 진단하며, 현대인이 겪는 불안과 공허의 근원을 짚어낸다. 저자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문제의 핵심을 '사유의 부재'에서 찾는다. 문해력의 저하와 피상적인 이해에 머무르는 습관은 결국 삶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까지 약화시킨다. 그 결과,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내면은 공허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방향을 잃은 독자들에게 하나의 해답을 제시한다. 그것은 거창한 철학이 아닌, 시대를 초월해 검증된 사상가들의 통찰을 바탕으로 한 '최소한의 생각'이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천천히 사고하는 과정을 통해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도록 돕는다.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은 단순한 자기계발서를 넘어, 잊고 지낸 사유의 힘을 회복하게 하는 안내서다. 화면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속에서, 독자는 비로소 삶의 의미와 진정한 행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된다.



나의 친구들

프레드릭 배크만 저 / 출판사 다산북스 | 발매일 2026년 03월 25일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오베라는 남자』로 깊은 울림을 전한 작가 프레드릭 배크만이 신작 『나의 친구들』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선보이는 이번 작품은 출간과 동시에 독자와 평단의 주목을 받으며 다시 한 번 그의 저력을 입증했다. 이 소설은 '관계'와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에 둔다. 각기 다른 상처와 사연을 지닌 인물들이 만나 서로의 삶에 스며들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서로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거창한 사건보다는 일상의 순간과 감정의 결을 따라가며,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관계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배크만 특유의 따뜻한 시선과 유머는 이번 작품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한다. 웃음과 슬픔이 교차하는 서사 속에서 인물들은 완벽하지 않기에 더 인간적이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 독자는 깊은 공감과 위로를 발견하게 된다. 『나의 친구들』은 결국 묻는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로 남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 울림으로 독자의 마음을 두드린다.



완벽한 원시인

자청 저 / 출판사 필로틱 | 발행일 : 2026년 03월 11일

10만 년을 되돌려 되찾는 뇌 설계도
지금 한국 증시는 단순한 자산시장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정부가 추진하는 증시 정상화, 기업가치 제고, 금융 접근성 확대 정책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개인 투자자에게 유례없는 기회가 열리고 있다. 과거 '자본시장 = 소수의 영역'이라는 인식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으며, 시민이 직접 금융 생태계에 참여해 경제의 주체로서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진보를 위한 주식투자』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정확히 짚어내며, "투자란 곧 참여이고, 참여가 곧 변화"라는 관점을 제시하는 책이다. 저자는 진보적 가치와 금융 행동이 결코 충돌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 구조의 개선을 위해 경제적 주체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시장을 이해하고 투자에 참여하는 일 자체가 경제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풀어낸다.



에이전트 AI의 시대

기술은 오랫동안 인간의 판단을 돕는 도구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에이전트 AI’는 그 역할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까지 수행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제 인공지능은 질문에 답하는 존재가 아니라, 목표를 이해하고 해결 과정 전체를 대신 수행하는 ‘디지털 대리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예시 1▶ 일상 속 선택까지 대신하는 AI

퇴근길, “오늘 저녁 뭐 먹지?”라는 고민을 던지면

AI는 최근 식단, 선호 음식, 주변 식당 대기 시간까지 고려해 메뉴를 추천한다.

필요하다면 예약이나 배달 주문까지 자동으로 완료한다.

에이전트 AI의 핵심은 ‘자율성’에 있다. 사용자가 단순히 “노트북을 추천해줘”라고 요청하면, 이 기술은 가격 비교, 성능 분석, 사용자 리뷰 검토를 거쳐 최적의 제품을 선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구매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요청을 여러 단계의 행동으로 나누고, 이를 스스로 실행하는 점이 기존 AI와의 가장 큰 차이이다.

예시 2▶ 쇼핑의 전 과정을 대신하는 AI

“영상 편집용 노트북이 필요해”라는 한 문장으로

AI는 성능 비교 → 리뷰 분석 → 가격 추적 → 할인 적용까지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가장 유리한 조건의 구매 링크를 선택하고 결제 단계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쇼핑 영역에서는 개인의 취향과 예산을 반영해 상품을 선별하고 결제까지 대신 수행하는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며, 업무 환경에서는 이메일 작성과 일정 조율, 데이터 정리까지 처리하는 ‘AI 비서’가 활용되고 있다. 여행 분야에서도 목적지와 기간만 입력하면 항공권과 숙소를 예약하고, 일정까지 구성해주는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과거에는 각각의 과정을 사람이 직접 선택하고 실행해야 했다면, 이제는 AI가 그 과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예시 3▶ 업무를 정리하는 AI 비서

“이번 주 회의 정리해줘”라는 요청만으로

회의록 요약 → 핵심 결정 정리 → 공유 메일 작성 → 후속 일정 등록까지 자동 처리된다.

사람은 결과를 확인하고 방향만 결정하면 된다.

예시 4▶ 여행을 설계하는 AI

“3박 4일 제주 여행”이라고 입력하면

항공권 예약, 숙소 선택, 동선 최적화 일정표가 한 번에 생성된다.

날씨와 혼잡도를 반영해 일정 수정까지 제안한다.

기업 환경에서도 에이전트 AI의 도입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고객 상담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넘어,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해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거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업무 효율 향상을 넘어, 기업 운영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예시 5▶ 전략까지 제안하는 AI

AI는 고객 구매 패턴을 분석해

“이번 주 어떤 상품을 어떤 방식으로 노출할 것인지”를 제안한다.

광고 문구 생성부터 성과 분석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새로운 고민도 존재한다. AI가 내린 선택이 항상 최선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또한 반복적인 선택을 AI에 맡기면서 인간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점차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술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수록, 인간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위임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예시 6▶ 선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AI가 추천한 상품이 기대에 못 미쳤을 때,

그 선택은 ‘도구의 결과’일까, ‘사용자의 선택’일까.

편리함이 커질수록 책임의 경계는 점점 흐려진다.

에이전트 AI는 단순한 기능의 진화를 넘어,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는 전환점에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자동화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이 어떤 역할을 유지하고 어떤 선택을 직접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기술이 대신해주는 시대일수록, ‘무엇을 맡기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세계 경제를 흔드는 좁은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지금 세계는 하나의 지역에서 시작된 긴장이 곧바로 전 지구적 파장으로 번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에너지와 직결된 문제는 국경을 넘어 모든 국가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 이슈’로 작용한다.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 사회가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중심에는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있다.

이 좁은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이곳을 통과한다. 때문에 이 지역의 불안정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경제 전체를 흔드는 변수로 작용한다.

최근 이 지역을 둘러싼 갈등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만약 해협이 봉쇄되거나 통항이 제한될 경우, 원유 공급망이 즉각적으로 흔들리며 세계 경제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장은 이러한 ‘가능성’만으로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유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전 세계 물가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원유 가격 상승은 곧 운송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식료품과 생활 물가 전반의 상승으로 연결된다. 결국 소비자들은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또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그 영향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수입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산업 전반의 비용 구조가 흔들리며, 기업과 정부 모두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글로벌 이슈로 확대된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세계는 하나의 공급망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특정 지역의 불안정이 곧 전 세계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우리는 묻게 된다. 과연 이 불안정한 균형 속에서, 얼마나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계절이 바뀌는 순간, 옷장도 바뀐다



| 환절기 옷장 정리와 보관 꿀팁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는 옷장을 정리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겨울옷은 부피가 크고, 봄옷은 가볍고 다양해지는 만큼 정리를 제대로 해두면 이후의 생활이 훨씬 편리해진다. 특히 무작정 넣어두기보다 ‘정리와 보관’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옷장 정리는 ‘비우기’에서 시작된다. 지난 시즌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나 상태가 좋지 않은 옷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 공간이 확보되면 새로운 계절 옷을 더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고, 옷을 찾는 시간도 줄어든다. 겨울옷은 보관 전 반드시 세탁하거나 드라이클리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땀이나 오염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다음 시즌에 꺼냈을 때 변색이나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접어 보관하는 것이 기본이다.

보관 방법도 신경 써야 한다. 니트나 코트처럼 형태가 중요한 옷은 접어서 보관하고, 셔츠나 가벼운 아우터는 걸어두는 것이 좋다. 또한 옷 사이에 제습제나 방충제를 함께 넣어두면 습기와 벌레로부터 옷을 보호할 수 있다. 진공 압축팩을 활용하면 부피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만, 소재에 따라 손상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봄옷은 ‘자주 입는 순서’대로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날씨 변화가 큰 환절기에는 다양한 두께의 옷을 함께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얇은 아우터와 기본 아이템을 손이 잘 닿는 위치에 두면 훨씬 효율적인 옷장 관리가 가능하다. 환절기 옷장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생활의 리듬을 바꾸는 작은 시작이다. 계절이 바뀌는 만큼 옷장도 새롭게 정리해보는 것은 어떨까.

올바른 환기 습관

숨 쉬는 공간이
건강을 만든다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낸다. 집, 사무실, 카페 등 다양한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건강 요소가 된다. 특히 봄철에는 미세먼지와 황사, 꽃가루까지 더해지면서 실내 공기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많은 사람들이 창문을 여는 것으로 환기를 대신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

환기의 출발점은 ‘타이밍’이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비교적 낮은 오전 시간대나 비가 온 직후가 환기에 적합하다. 이 시간에는 외부 공기가 상대적으로 깨끗해 실내 공기를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다. 반대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무조건 창문을 오래 여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럴 때는 짧고 집중적인 환기를 하거나 공기청정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환기 방법 역시 중요한 요소다. 많은 경우 한쪽 창문만 열어두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공기 순환 효과가 크지 않다. 창문을 서로 마주 보게 열어 ‘맞통풍’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공기가 한 방향으로 흐르면서 실내에 쌓여 있던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각종 오염 물질이 빠르게 외부로 배출된다. 단 5~10분의 짧은 시간이라도 올바른 방식으로 환기를 하면 공기 질은 눈에 띄게 개선된다. 환기 전후의 작은 습관도 건강에 영향을 준다. 환기 전에 바닥

이나 가구 위에 쌓인 먼지를 가볍게 정리해두면, 창문을 열었을 때 먼지가 다시 공기 중으로 떠오르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환기 후에는 창틀이나 커튼, 환기 경로 주변을 한 번 더 정리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외부에서 유입된 미세먼지나 오염 물질이 실내에 남아 있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계절에 따른 환기 방식의 조절도 필요하다. 봄철에는 외부 공기 질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고, 여름에는 습기를 고려해 짧고 자주 환기하는 것이 좋다. 겨울에는 실내외 온도 차가 크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라도 규칙적으로 환기해주는 것이 실내 공기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결국 환기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조절해야 하는 생활 습관이다.

좋은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몸은 그 변화를 분명하게 느낀다.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피로감이 줄어드는 작은 변화들이 쌓여 건강한 일상을 만든다. 하루 단 5분이라도 의식적으로 환기를 실천하는 습관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공간의 공기를 바꾸는 일은 곧 나의 컨디션을 바꾸는 일과도 같다. 오늘 하루, 창문을 여는 방식부터 조금 달라져 보는 것은 어떨까.

봄의 향을 담은 건강 한끼, 쑥이 주는 힘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식탁 위에 오르는 식재료가 있다. 특유의 향과 씹싸름한 맛으로 봄을 대표하는 쑥이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깨우고 입맛을 되살려주는 쑥은 예로부터 환절기 건강을 지키는 음식으로 사랑받아왔다.

쑥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특히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몸을 부드럽게 데워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특유의 향 성분은 소화를 도와 봄철 떨어진 식욕을 회복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고

쑥에는 비타민 A, C, E와 칼슘, 철분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다. 그중 비타민 A의 함량이 높아 눈 건강과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

·혈액순환 개선

쑥에 함유된 성분들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어 손발 차가움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여성 건강에 도움

예로부터 쑥은 여성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있으며,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소화 촉진과 장 건강

쑥의 독특한 향기 성분은 소화를 촉진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항산화 작용

쑥에 함유된 클로로필과 다양한 식물성 화합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

쑥의 매력은 다양한 요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바삭하게 부쳐 먹는 쑥전이다. 간단한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면서도 향긋한 풍미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 봄철 별미로 손꼽힌다. 따뜻한 국물 요리를 원한다면 쑥국도 좋은 선택이다. 은은한 향과 함께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또한 쑥을 활용한 쑥떡은 달콤하면서도 건강한 간식으로 인기가 높다.

최근에는 샐러드에 곁들 이거나 차로 우려 마시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이처럼 쑥은 한 가지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 속 여러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식재료다. 다만 쑥은 신선도가 중요한 만큼 깨끗이 손질하고 빠르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과도한 섭취보다는 적당량을 꾸준히 즐기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 음식은 몸의 균형을 되찾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향긋한 쑥 한 접시로 봄의 기운을 온전히 느껴보는 것도 좋겠다.

독자의견

1. (주)명성이앤씨 대리 정혜진

- 건설업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소한 점이 많았는데, 코스카 레터의 '건설산업정보' 파트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복잡한 법령 개정 사항의 핵심만 간략히 요약되어 있어 실무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는 링크도 함께 제공되어, 최근 현장에 필요한 다국어 안전보건표지를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유익한 소식을 기대하겠습니다.

2. (주)엔텍건설 부장 김혜정

- 코스카레터에는 전문건설업 관련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전문건설업의 영업 여건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원도급사의 경영상 문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전문건설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세심한 법적 장치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코스카레터를 통해 유익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기를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독자퀴즈

코스카레터 잘 읽으셨나요?

**Quiz를 풀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되었으며, 기존의 발주자 직접 지급 합의 등 예외사유는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주요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경우에도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정 법령의 시행일은 언제일까요?

지난호 독자퀴즈 정답

2026.06.30.

지난호 독자퀴즈 정답자 발표

1. (주)경방수도사 대표이사 임한규
2. (주)목림건설 대표이사 박용순

정답을 아시는 분은 협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를 통해 응모(기간:2026.6.30(화)까지)하시면 추첨하여(정답자에 한함) 스타벅스 상품권을 드립니다.



불필요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건설사업자는 필수적으로 기한내에 교육받고 신고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해 큰 부담이 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한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www.kosca.or.kr) 및 소통앱인 '코스카톡'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각종 법령정보와 공지내용 등을 파악하여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NO.1

건설업 신규등록 교육 이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건설업 신규 등록자 교육 8시간 이상 이수(건설업 등록 후 6개월 이내)

▲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관련 문의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edu.kosca.or.kr), 02-3284-1076

NO.2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6조]

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 통보(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원도급 1억 이상(하도급 4천만원 이상) 도급계약 시

▲ 미 통보시 시정명령(시정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또는 해당공사 완료일까지
미 통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관련 문의 키스콘(cws.kiscon.net) 1588-8456, 대한전문건설협회 02-3284-1010

NO.3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의3]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등) 변경 시 해당 등록관청에 변경 신청(기재사항 변경 후 30일 이내)

▲ 미신고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 관련 문의 본점 소재지 등록관청, 대한전문건설협회 02-3284-1010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2026 Vol.48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30번길 30, 4층(범천동, 전문건설회관)

Tel. 051-633-0260 Fax. 051-633-0261

www.Kosca21.or.kr